

임상-정상가족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ypes of Family System,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and
Copying Strategies: Clinic-Normal Family Comparision –

울산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정민자

Dapt. of Home Management, Ulsa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Jeoung, Min Ja

〈목 차〉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I.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문제 설정 | 참고문헌 |
| IV. 연구방법 및 절차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copying strategies and the types of family system.

For this purpos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healthy families(231) and clinic families(103).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Partially family stress, family resources, copying strategies was different by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age, years of marriage, job, education, family life cycle family income religion and types of family system).
2. The type of family system was meaning factor for the family stress study.
3. In the case of healthy family, family stress was negative related with family resources, but healthy families used copying strategies variously.
4. In the case of clinic family, family stress was related with family resources and copying strategies storngly.

* 이 논문은 1990년도 문교부지원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방대 육성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5. Classifying the types of family system, clinic families were classified extreme family(20.5%), midrange family(39.7%), balanced family(39.7%) and healthy family were classified extreme(13.1%), midrange family(25.8%) balanced family(61.1%).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현대 사회가 복잡해져갈수록 주변 환경의 변화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특히 현대가족의 역할과 기능, 체계의 성격이 전통가족과는 질적으로 달라지면서 개인은 가족과 사회에서 양면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즉 과거의 가족이 가족체계유지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점에서 개인은 생활의 여러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가족안에서 보호와 안전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현대가족은 애정중심과 핵가족 중심적인 가족으로 친족체계가 이미 약화된 상태이므로 서로의 계약이 실행되지 않는 한 깨어지는 확률이 높다. 이것은 이혼의 증가와 정서적 이혼상태가족, 문제를 가진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또한 사회자체도 개인에게 고독과 소외감을 갖게 하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생존의 위협을 받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스트레스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신체 및 정신건강에 관련된 각 분야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은 높아져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고병학, 1981; 박종원, 1982; 배영숙, 1982; 심상호, 1982; 이평숙, 1981; 정민자, 1983; 배종열, 1986; 이영희, 1985; 장병옥, 1985; 김혜래, 1985; 김양희, 1986; 최해림, 1986; 소숙희, 1987; 최명구, 1987; 김정옥, 1988; 전세경, 1989; 최동숙, 1989; 김정옥, 1990; 김명자, 1990).

현대가족의 기능중 애정의 기능, 휴식, 회복의 기능, 치료적 기능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가족자체가 가족원의 개인적 성장과 사회로부터 받는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지지적 체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의 적절한 대응책략과 가족자원, 적당한 가족체계유형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만일 가족이 생활변동으로 인한 갈등과 긴장을 잘 관리하고 대처하면 가족이 진보와 성장의 방향으로 나가지만,

그에 대한 대처과정과 책략이 적절하지 못하면, 가족 내에 증상을 가진 자녀 또는 가족원을 갖거나, 문제 가족이 되거나, 가족이 위기를 맞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건강한 가족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족의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각종 요인의 진단이 요청된다.

스트레스 근원을 보는 관점은 학문 분야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대응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이종옥, 1990; 김정희(역), 1988; 이일남(역), 1988; 이민규(역), 1988). 본고에서는 가족학적 입장에서 가족들이 겪는 생활사건에 한정하여 스트레스 근원을 정의하고(McCubbin, 1979, 1983) 그에 대한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의 자원, 가족체계유형, 가족의 여러 요인과 관련하여 보고자 한다(McCubbin, 1985; Olson, 1985; 김양희, 1986; 김정옥, 1988; 1990). 오늘날 상담이나 치료분야에서는 개인의 증세, 문제행동마저도 개인의 정신내적 원인보다는 대인관계 또는 가족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가족체계의 역기능 결과로 이해하고 접근하려는 경향이 있다(Bowen, 1984; Muchin, 1986; Satair, 1986; Goldenberg, 1984; Olson, 1983, 1986).

예를 들어 가족생활상담과 치료과정에서 평가해보아야 하는 것으로는, 각가족이 처해있는 문제의 진단, 가족체계의 고유한 유형, 가족의 스트레스의 종류와 정도, 가족이 가족과 사회 체계와 관련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각종 자원들,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의 의사소통 체계와 기능화 유형 등에 대한 종합적 진단이 있어야 문제행동 및 가족이 원하는 치료와 상담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Olson(1986, 1988, 1991)의 경우 알콜 가족, 비행청소년 가족, 성 문제 가족, 개인증상으로 입원한 가족으로 가족체계와 가족스트레스를 평가했을 때의 미있는 상관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했다. 한국에서도 가족상담운동과 가족체계 측정에 대한 관심

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체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여려면에서 시도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족의 스트레스 상황, 가족의 지원내용인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체계의 유형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상담을 하고 있는 가족과 주위에서 건강한 가족이라고 추천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적인 자료와 미래의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기초작업을 목적으로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본고에서는 가족스트레스를 가족들이 겪는 생활사건에 한정하여 보았으며 그에 대한 가족의 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의 체계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에 대한 가족의 여러 요인이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가족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어떤 가족이 어떤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어떤 자원으로 어떤 과정을 통하여 어떤 대응행동을 할 것인가를 분석하고,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McCubbin, 1979). 스트레스 연구는 사회문제와 병리의 근원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연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특히 가족스트레스 연구는 스트레스로서 생활사건변동(life event)이 우리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긴장과 위기감으로 나타나는지 관점을 가지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에 관련되는 제반변인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가족의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

Hill은 가족스트레스 모델로서 ABC-X모델¹⁾을 제시하면서 가족스트레스 이론에 대한 기초를 제공했다. Hill의 모델을 기초로 Broderick(1970), Burr(1973), Hansen(1976), MaCubbin(1929) 등은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과 가족의 회복력을 첨가시킴으로써 이론을 세련화시켰다. Burr(1973)과 McCubbin(1979) 모델을 보면

가족의 취약성(가족자원의 감소, 결핍, 장애)은 가족의 한계성과 가족의 적응력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고 가족스트레스 및 위기를 좌우한다. 가족의 회복력은 스트레스 사건으로부터 초래된 위기로부터 가족체계가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의미한다.

McCubbin(1982, 83)은 다시 Double ABCX모델을 설정하여 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위기의 예방과 적응의 일부로서 자원과 지위를 조절하는 수단으로서 대처(coplying)의 중요성을 표현했다. 따라서 자원과 대처는 어떤 가족이 위기에 더 잘 적응하는지를 예견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김양희, 1989), 따라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접근은 스트레스가 무엇인가, 그에 대한 가족의 자원, 가족의 인지 및 평가, 가족의 취약성과 회복력, 대처전략을 고려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Olson, 1988, Lavee, 1991)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반응과 가족체계유형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이미 가족체계유형 자체가 가족스트레스와 관련되며 적절히 구조화된 가족일 경우가 스트레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규범적 스트레스원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상황의 인식과 자원에도 가족체계유형이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Lavee, 1991).

본고에서는 가족스트레스가 무엇인가는 대체로 합의된 개념인 가족스트레스원으로서 가족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변화, 조건인 가족생활사건(FILE)²⁾에 의해 야기된 긴장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서 가족이 인지하는 곤란정도나 부담감을 말한다. 가족스트레스 측정도구로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FILE에 근거하여 있는 실정이며 Lavee, 1991), 본 연구에서도 FILE에 기초하여 가족스트레스를 접근하고 있다.

1) A(사건 및 어려운 일)→B(위기에 대처하는 가족의 저력(자원))→C(사건에 대한 가족의 지각 및 판단과의 상호작용)→X(위기). 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족이 회복할 수 있는 자원 또는 능력이 없으면 가족이 위기에 빠짐.

이러한 가족스트레스에 관련된 변인을 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브았을 때 가족생활 주기에 따라서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o 달라지며(Lavee, 1991), 취업여성의 경우에는 비취업여성보다 가족스트레스가 높다. 또한 사회계층이 하류계층으로 갈수록, 가족의 자원량^o 부족할수록 스트레스가 높게 인지되고 있다(Boos, 1979; Hamilton, 1979).

한편 한국의 가족스트레스 연구를 보면 정민자(1984)의 경우, 가족스트레스는 성별, 교육정도, 가족 생활단계, 가족수입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고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사회심리적 자원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종렬(1985)의 연구에서는 일상사건의 변화정도와 디스트레스의 경우에는 경제적 긴장이 가장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극복방안과 단계가 있는 것은 심리적 자원론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옥, 이광주(1988)의 주부스트레스요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의 태도, 부부간의 성생활, 날련의 읊조 및 늦은 귀가시간, 경제적 곤란, 자녀의 양육태도가 주부가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유의한 관계를 가졌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주부의 연령, 결혼지속연수, 자녀수, 사회 경제적 지위였다.

김양희, 전세경(1989)의 연구는 대입 수험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가족스트레스를 연구한 결과 자녀의 학업성적 순위가 학업이나 대입관계 스트레스에 관련되고 떨을 둔 부모가 자녀의 건강차원에서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족스트레스 정도는 개인심리적 차원과 가족체계 차원이 많을수록 적은 스트레스를 느꼈다. 김정옥, 박순희(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주기에서 신혼기 및 미취학 가족의 학동^o, 청소년기, 진수기, 노년기 가족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다. Skinner(1984)는 맞벌이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 가족생활주기 및 가족형태, 취업여성의 직업종류에 따라 스트레스가 다르다고 보았다. 즉, 젊은 맞벌이 부부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매우 높고, 확대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유리된 핵가족일수록, 비전문직 취업일수록 스트레스를 줄이 받는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연구 결과가 일치된 경향이 브족한 실태이므로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더욱 넓힐 것을 고려하여 지속적

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가족자원

자원은 가족체계의 목표나 욕구를 달성하는 수단이 되고 모든 문제해결에 필요한 잠재력을 가진 요인이다(Deacon과 Firebog 1981).

Rogers(1973)는 가족자원을 표현적 자원과 수단적 자원으로 나누고 표현적 자원에는 만족감, 소외감을, 수단적 자원에는 수입, 직업, 부인의 취업 등을 포함시킨다(Meddling, 1979). 그런데 그런 자원의 범주라 할지라도 가족원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가족자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의 자원이라고 할 때는 개인의 자원뿐 아니라 가족이 체계로서 갖는 자원,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는 지지 등을 모두 포함하여 복합적 요소에 대한 가족원의 인지에 기초하여 보아야 한다.

McCubbin(1983) 등은 개인적 자원, 가족의 내적 자원,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문헌을 참고하여 사회심리적 자원을 구성했는데, 이것은 가족 개개인의 심리적 상태, 주관적 지각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심리적 가족자원중 개인적 자원은 가족원 누구에게나 필요시에 제공될 수 있는 가족 개인의 질(Quality)이고 협조로서 경제적 도움, 교육(인지능력 및 현실지각에 도움을 주고 문제 해결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봄), 건강, 심리적 특성(성격) 등이 기본요인이 된다. 가족 체계 내적 자원은 가족의 적응력, 통합력, 일치정도 등의 가족 행동 특성, 의사결정, 문제해결력, 자원관리능력, 가족구조의 다양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족자원이다. 이와 더불어 사회적 교류와 체계망을 통한 지원으로 친구관계, 이웃, 지역사회 기관의 보조 등에서 받는 자원도 가족자원의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가족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본다면, 가족자원의 래퍼토리가 다양하고, 가족자원^o이 많을수록 가족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 상황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McCubbin, 1983), McCubbin(1983)은 가족 자원의 차원을 가

2) FILE : Family Inventory of Events and Changes

족자부심과 의사소통, 가족건강과 성취성, 친척과의 교류, 경제적 풍요감의 4차원으로 구성했다. 그런데 가족자원의 량은 교육이나 가족수입에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정민자, 1984: 57) 실제로 그 집안의 사회 경제적 지위는 객관적 요인으로 중요점을 간파 할 수 없다. 가족자원과 가족관계, 가족환경과의 관련을 보았을 때, 가족갈등과는 부정적 관계를 보였고 가족의 일치성, 표현성, 통합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갈등이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가족 자원이 적었다. 실제로 한국에서 적용한 연구(정민자, 1984)를 보았을 때 가족자원과 가족 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각 하위 자원의 량이 적을수록 가족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자원중 학업스트레스는 가족체계 자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고, 대인관계는 개인심리적, 가족체계 자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건강은 개인, 가족, 경제적 복지감과 부정적 관계를 갖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전세경, 1989)도 있다. 위에 본 바와 같이 가족 자원과 가족스트레스와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즉 가족자원이 풍부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족일수록 같은 스트레스원에 접했을지라도 스트레스에 적용하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3.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의 대응 책략이란 '가족이 어려운 일이나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적응하는 방식이다. Skinner(1983)에 의하면 대응(copying)책략은 스트레스에 대한 가족의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가족을 보호하는 가족체계의 자원들을 강화 유지시키며, 위험한 사건과 이에 따른 고난들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고,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함으로써(김양희, 1989) 환경에 영향을 주고 문제해결을 촉진한다. 즉 가족대응책략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촛점을 두고 있는데, 한 연구에 의하면(McCubbin, Lasen, 1982) 대응책략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수정되어질 수 있으며, 대응행동 자체도 가족이 하나의 체계인 이상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하게 쓰여진다고 했다. 가족체계안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조직화와 통합을 하게 되고, 가족원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즉 적절한 대응책략은 첫째, 가족의 조직화와 의사소통을 위해서 만족할 만한 내적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둘째, 가족구성원의 독립심과 자존심을 증진 시켜야 하고, 셋째, 가족의 결속력과 일치를 위해 가족유대를 유지시키며, 넷째, 지역공동체안에서 사회적 지원의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며, 다섯째, 가족의 스트레스로 인한 갈등과 많은 변화량을 조절하는 방식이어야 한다(McCubbin, 1985).

대응책략에 대한 것을 보면 여러차원으로 살펴볼 수 있다. McCubbin(1989) 등은 가족의 대응책략을 가족의 내적전략과 외적전략으로 나누어, 내적전략은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의 자신감, 가족문제에 대한 가족의 재해석 경향, 가족이 자연스럽게 문제에 접근하는 비활동적인 전략인 소극적 가족평가의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외적 전략은 가족의 외부체계인 친구들, 지역사회, 확대가족, 교회나 종교적 자원을 이용한 전략으로 분류하여 연구했다. 대체로 기능적 가족일수록 가족내적 전략을 주로 사용한다. Olson 등은 가족의 대응책략에서 영적도움 추구가 가장효율적인 대처방법이고 다음이 문제해결, 형식적 비형식적 도움추구, 수동적 평가의 순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았다(김명자, 1991). Lazarus, Launer(1978)에 의하면 대처행동으로 문제해결 접근법과 감정조절 방법으로 분류했는데 문제해결 접근법은 문제 또는 스트레스 상황 자체를 다루며, 감정조절방법은 감정에 맞추어 조절하려는 방식이다. 그런데 부부문제에 있어 대처방법은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는 정서적 접근인 감정조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한다. Bell(1977)은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장기적용방법과 단기적용방법으로 나누었다. 즉 스트레스를 대처하는데 장기간 동안 효과가 있는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방법과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비현실적이고 파괴적인 단기적용방법이 있다. 김정희 등(1988)이 개발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스트레스 대응책략 척도를 보면 문제중심적 대처, 정신완화적 대처, 소망적 사고 및 사회지원의 추구의 4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주로 개인영역의 대응책략이다.

대응책략에 관련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를 보면, 남성과 여성에 따라 대처방식이 다르다고 보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은 수동적, 정서적, 종교에 의지, 도움 추구, 회피의 방식을 쓰고 남성은 문제중심적, 인지적 전략을 쓴다. 따라서 여성은 문제에 직접 직면하기보다 외부도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Davis, 1985). 장병옥(1985)의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고, 자녀수가 적을수록, 종교가 있는 집단,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일수록 대응책략의 사용방법이 넓다고 주장했고, 김양희, 전세경(1989)의 경우는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단기적 적용방법을 사용하고, 대인관계와 건강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단기적용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명자(1991)의 연구에서는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은 남편은 문제중심적 대처를, 부인은 감정역제나 인내의 방법을 빈번히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김정옥, 박순희(1990)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사건과 대응행동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가족내의 긴장, 경제·사업에 대한 긴장, 직업 및 가족생활에의 긴장, 질병 및 가족 보살핌에 의한 긴장등은 「사회적 지원」과 「종교에의 의지 및 긍정적 사고」의 대응책략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주부는 가족 스트레스를 관리할 때 전략적인 행동 변화와 같은 내부적이고 문제분석적인 방법보다 사회적 지원(친구, 친척, 이웃)과 종교에의 의지같은 외부적 전략과 소극적인 해결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대응책략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탐색단계이며, 특히 문제를 가진 가족과 정상가족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책략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자료는 아직 비교되지 않은 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되며 측정도구는 McCubbin과 Olson 등이 개발한 가족 대응책략 척도를 기초로 개발하여 살펴본다.

4. 가족체계 유형

가족스트레스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볼 때 가족체계의 질이 좌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가족사원, 가

족상황, 구성요소등이 상호작용 하겠지만, 최근의 이론적 명제는(Hansen과 Johnson, 1919; McCubbin과 Thompson, 1986; Olson과 McCubbin, 1982) 가족 체계 유형은 가족의 외적, 내적 자원과 상호작용하고 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쳐 가족의 스트레스사건에 관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스트레스연구에도 가족체계 유형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Lavee와 Olson, 1991). 이러한 가족체계는 가족치료자나 가족학자들에 의해 가족체계론적 입장에서 정리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Olson의 모델을 중심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Olson등은 가족의 역동성을 2개의 차원인 결속력(Cohesion)과 적응력(Adaptation)으로 크게 나누었다. 가족의 결속력이란 가족원이 가족내에 다른 체계 또는 성원들과 분리 또는 결속되어 있는 정서적 유대감이다. 이것은 가족원간의 정서유대, 가족의 외부환경, 하위체계들의 경계, 연합이 이루어지는 정도와 대상,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의 사적 시간의 허용정도, 의사결정 유형, 가족과 개인의 취미 및 활동의 보장의 정도로 측정된다. 가족의 적응력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 역할, 규칙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가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 리더쉽,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의 협상유형, 역할관계와 분담, 가족 규칙의 용통성을 근거로 측정한다. 각 차원은 다시 결속정도에 따라 과잉분리(Disengaged), 분리(Separated), 연결(Connected), 밀착(Emmeshed)으로 나누고, 적응력은 경직(Rigid), 구조적(Structured), 융통적(Flexible), 혼란된(Chaotic) 수준으로 나누어 16가지 가족체계 유형을 정리했다.

가족체계적 접근을 하는 연구에는 가족이 균형가족일 때가 극단가족의 경우보다 기능적이라고 보고 했다. 실제로 정상가족은 균형가족이 많은 편이고 비행 청소년 가족, 알코올 중독 가족, 성폭행 가족, 문제가족들이 극단 수준 또는 중간범위 가족에 속했다(Olson, 1986). 그런데 가족 체계 연구시에 정상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 16개 유형으로 자세히 분류하여 논하기가 어려우므로 대체로 결속력과 적응력의 높고, 낮음에 따라 4분면을 이용해 연구하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가족, 중간범

위가족, 균형가족의 3종류의 가족체계로 나누어 체계 유형을 연구한다(Olson, 1985; Lavee, 1988, 1991). Olson은 FACES-Ⅲ척도 개발에서 필요에 따라 집 단을 분류하여 사용해도 의미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Olson, 198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단-중범위-균형가족으로 분류하여 접근하고 있다.

가족체계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보았을 때 분리된(Sperated)가족보다는 연결된(Connected)가족이 가족 자원량이 많고 더 효과적인 대응책략을 사용했다(Olson, Lavee, 1991). Hansen과 Johnson(1979)의 연구에서 가족 적응력과 가족 스트레스 외의 관계를 살펴보면 구조적(Structured)가족이 더 잘 대처하리라 가정했으나 융통적(Flexible)가족이 더 나았다고 했다. 최근 연구인 Olson, Lavee와 McCubbin(1988) 연구에서는 가족내 긴장, 가족 복지감이 가족 적응력과 다르게 반응하므로 아직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지 않다. Lavee와 Olson(1991)의 연구에서는 가족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체계는 연결성(Connectedness)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으며, 융통적인 가족 보다는 구조화된 가족 일수록 가족 스트레스(가족내 긴장)가 더 낮은데 이것은 구조화된 가족은 역할과 규칙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 가족 스트레스사건에 대해 심리적으로 잘 통제되어 그럴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 체계 유형을 고려했을 때 융통적-연결적인 가족(유형 Ⅱ)은 규범적 전환사건과는 관계가 없고 누적된 가족 스트레스에는 영향을 주고, 구조적-분리된 가족(유형 Ⅲ)가족은 규범적 변화에 영향을 준다. 융통적-분리된 가족(유형 Ⅰ)과 구조적-연결된 가족(유형 Ⅳ)은 규범적 전환 사건과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 사건의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재 가족 체계 유형과 가족 스트레스와의 관계에 대해 연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작의 단계에 불과하다고 본다(Lavee, 1991). 특히 극단가족, 문제가족이나 가족 생활주기를 통제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계속 실증적 연구를 해야 할 입장이다. 본 연구는 가족체계 유형의 분류에 대한 조사와 아울러 실제 가족체계 유형이 가족스트레스 연구에서는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본다. 특히 가족체계 진단은 상담 대상 가족과 건강한 가족을 가려내는 유용한 도구임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러한 측정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체계의 유형에 대한 전반적 자료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본 연구 문제를 설정하며 특히 정상가족과 상담중인 가족과는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문제를 도식화 해보면 그림(1)과 같다.

III. 연구문제 설정

이상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 연구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연구대상 가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 대응책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가족자원, 대응책략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3-1.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 자원과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2.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의 대응책략과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3-3.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자원과 대응책략과는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가?

연구문제 4-1.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 자원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4-2.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 스트레스와 대응책략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연구문제 4-3.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 자원과 대응책략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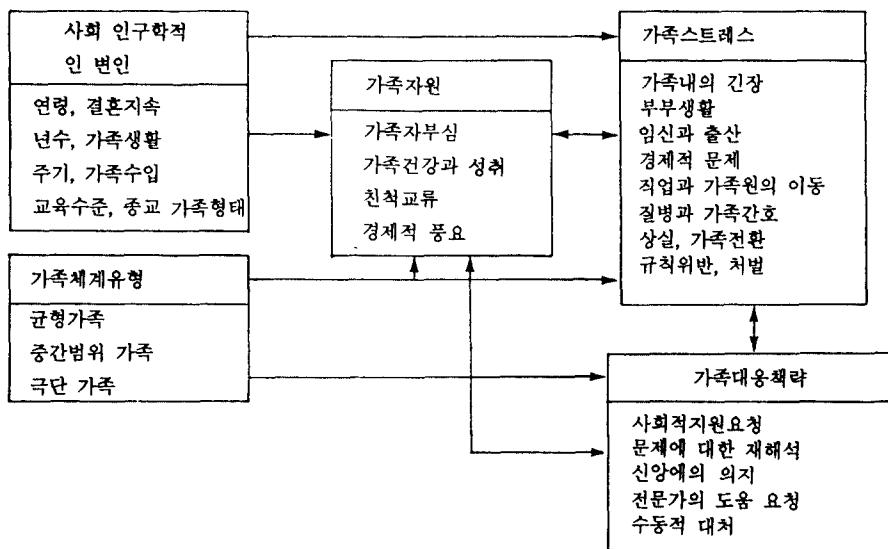
연구문제 5. 정상-상담 가족의 경우의 가족체계 유형, 가족 스트레스, 가족 자원, 대응책략은 어떻게 다른가?

IV.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자의 선정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정상가족과 상담을 받고 있

〈그림 1〉 Clinical-Normal Family Comparison Model



는 임상(상담)가족으로 분류하여 가족원중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정상가족의 경우는 주위에서 건강한 가족이라고 평판받고 있는 가족으로 한정하고, 임상가족은 원칙적으로 병원이나 전문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의 가족으로 볼 수 있겠으나, 본 연구가 가족스트레스 모델의 적용이 목적이므로 일단 가족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사건이 일어나 상담기관을 찾아 초면 이상의 상담을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임상(상담)가족으로 분류하였다. 상담을 받고 있는 내용은 주로 가정문제로 분류되는 이혼, 부정행위, 부부문제, 간통, 재산관계, 양자 친자관계, 폭력등과 관련된 것이었으며 친분 관계가 있는 가정법률 상담소의 상담간사를 중심으로 4개월에 걸친 상담자가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하여 1991년 4월 주부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약간의 문안수정과 척도를 완성하였다. 본 조사는 6월부터 9월달까지 울산시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상담기관은 울산, 마산, 부산, 가정 법률 상담소의 협조로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질문지 700부를 배포하였는데 실제 회수되어 연구에 사용된 것은 정상가족 231부, 상담가족 103부였

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대상자는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결혼지속년수는 꼴고루 분포되어 있는 편이다. 따라서 가족생활주기도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으나 노년기는 적어서 진수, 노년기를 합하여 분석하였다. 학력은 고등학교, 중학교, 대졸, 국졸순이며, 종교는 불교, 없음, 기독교, 천주교순이었다. 가족 형태는 핵가족이 대부분이었다.

2. 측정도구

(1) 가족 스트레스 목록

가족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McCubbin의 FILE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문항은 71문항으로서 구성하였고, 경험된 사건을 스트레스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긴장과 부담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스트레스량이 심한 것이다.

하위영역으로는 ① 가족내의 갈등(규범적 또는 부모역할 수행 등으로 느끼는 가족간의 갈등과 긴장) ② 부부 생활상의 긴장(부부간의 성과 애정과 관련된 사건으로 느끼는 긴장) ③ 임신과 자녀출산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변인 | 집단 | 빈도 | 백분율 | 변인 | 집단 | 빈도 | 백분율 |
|------------|-----------|-----|-------|------------|--------------|-----|-------|
| 가족 종류 | 정상가족 | 231 | 69.2 | 가족 생활주기 | 신혼기 | 31 | 9.3 |
| | 상담가족 | 103 | 30.8 | | 학령전기 | 72 | 21.6 |
| | 합계 | 334 | 100.0 | | 학동기 | 57 | 17.1 |
| 부인의 연령 | 20대 | 51 | 15.3 | | 청소년기 | 35 | 10.5 |
| | 30대 | 126 | 37.7 | | 대학기 | 70 | 21.0 |
| | 40대 | 119 | 35.6 | | 진수기 (중년기) | 38 | 11.4 |
| | 50대 | 37 | 11.1 | | 노년기 | 6 | 1.8 |
| | 무응답 | 1 | 0.3 | | 무응답 | 25 | 7.5 |
| | 합계 | 334 | 100.0 | | 합계 | 334 | 100.0 |
| 남편의 연령 | 20대 | 13 | 3.9 | 직업유무 | 유 | 93 | 27.8 |
| | 30대 | 125 | 37.4 | | 무 | 222 | 66.5 |
| | 40대 | 108 | 32.3 | | 무응답 | 18 | 5.4 |
| | 50대 | 86 | 25.7 | | 합계 | 334 | 100.0 |
| | 무응답 | 2 | 0.6 | 직업 근무형태 | 전임제 | 60 | 18.0 |
| | 합계 | 334 | 100.0 | | 시간제 | 20 | 6.0 |
| 결혼 지속년수 | 1~50만원 | 68 | 20.4 | | 임시금무 | 12 | 3.6 |
| | 60~99만원 | 50 | 15.0 | | 무응답 | 242 | 72.5 |
| | 100~140만원 | 52 | 15.6 | | 합계 | 334 | 100.0 |
| | 150~199만원 | 46 | 13.8 | 학력 | 국민학교 | 29 | 8.7 |
| | 200~800만원 | 69 | 20.7 | | 중학교 | 88 | 26.3 |
| | 무응답 | 41 | 12.3 | | 고등학교 | 142 | 42.5 |
| | 합계 | 334 | 100.0 | | 전문대 | 16 | 4.8 |
| 가족 수입 | 1~50만원 | 29 | 8.7 | | 대학교이상 | 54 | 16.2 |
| | 60~99만원 | 93 | 27.8 | | 무응답 | 5 | 1.5 |
| | 100~149만원 | 107 | 32.0 | | 합계 | 334 | 100.0 |
| | 150~199만원 | 42 | 12.6 | 종교 | 없음 | 73 | 21.9 |
| | 200~800만원 | 37 | 11.1 | | 기독교 | 52 | 15.6 |
| | 무응답 | 26 | 7.8 | | 천주교 | 38 | 11.4 |
| | 합계 | 334 | 100.0 | | 불교 | 157 | 47.0 |
| 자녀 수 | 0 | 12 | 3.6 | | 유교 및 기타 | 8 | 2.4 |
| | 1 | 54 | 16.2 | | 무응답 | 6 | 1.8 |
| | 2 | 127 | 38.0 | | 합계 | 334 | 100.0 |
| | 3 | 86 | 25.7 | 가족형태 | 부부 | 33 | 9.9 |
| | 4 | 25 | 7.5 | | 시부모동거 | 48 | 14.4 |
| | 5 | 13 | 3.9 | | 친정부모동거 | 7 | 2.1 |
| | 6 | 3 | 0.9 | | 부부와자녀 | 233 | 69.8 |
| | 무응답 | 14 | 4.2 | | 기타 | 10 | 3.0 |
| | 합계 | 334 | 100.0 | | 무응답 | 3 | 0.9 |
| | | | | | 합계 | 334 | 100.0 |

④ 가정의 경제적 긴장과 부담 ⑤ 직업상, 가족의 변화(가족원이 직업 때문에, 이동을 포함하는 사건으로 인한 갈등) ⑥ 질병과 가족의 간호(가족원, 친구, 친척의 질병으로 증가되는 문제와 도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⑦ 상실(식구나 친구의 사망, 절교 등으로 관계가 끝난 사건으로 인한 갈등) ⑧ 전환(가족원이 집을 떠남과 돌아오는 것, 친척 등이 새로 들어오는 사건) ⑨ 규칙위반(사회법률이나 규칙의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성되었다. 사건에 대한 긴장 및 부담감정도는 전혀없다 0점에서부터 매우까지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2) 가족 자원 척도

McCubbin(1983)의 FIRM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했는데 사회 심리적 가족 자원을 나타내는 하위요인인 ① 가족의 자부심 ② 가족의 건강과 성취 ③ 친척과의 교류 ④ 주관적으로 지각된 경제적 복지감으로 구성하였다. 거기에다 ⑤ 재정 불안정감 지표(FSI), 사회적 바람직성(SDS)를 포함하여 가족 자원에 관련하여 구성하였다.

(3) 가족 대응책력

가족의 대응책력은 McCubbin, Larsen과 Olson(1982)이 개발한 F-COPES를 기초로 하여 만들었으며 이것은 가족 자원과 상호관련되어 있다.

하위요인은 ① 사회적 지원요청(이웃, 친구, 친척 등) ② 문제에 대해 재해석 ③ 신앙에 의지 ④ 전문가의 도움 요청 ⑤ 수동적 대처로 크게 나누었으며 총 29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4) 가족 체계유형

가족 체계의 유형분류는 Olson의 동의를 얻어 Olson, Portner, Lavee(1985)가 3차례에 걸쳐 수정보완하고 표준화한 FACES-Ⅲ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가족의 결속력을 나타내는 10문항, 가족의 적응력을 나타내는 10문항을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따라서 각각 최저 10 점에서 최고 50점의 범위를 가진다. 가족의 결속력은 가족의 정서적 유대, 가족의 지지, 가족원간의 경계, 가족의 공동 시간과 친구관계, 가족의 취미와 오락의 개념이 들어 있고, 가족의 적응력은 가족의 지도, 통제 정도, 권력 구조, 훈육, 역할과 관련상의 규칙의 개념이 들어 있다.

(5) 신뢰도

본 측정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신뢰도를 평가해 본 결과(〈표 2〉 참고) 가족 스트레스목록은 $\alpha=.75$, 가족 자원은 $\alpha=.77$, 가족 대응 책력은 $\alpha=.76$, 가족 체계 평가도구는 $\alpha=.88$ 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3.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개인용 컴퓨터로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사용된 통계는 빈도, 백분율, ANOVA에 의한 F검증, Duncan의 집단검증,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 신뢰도 검증등의 방법이었다.

〈표 2〉 척도의 신뢰도

| | | Cronbach α | 미국의 표준화된 척도 |
|---|-------------|-------------------|-------------|
| 1 | 가족 스트레스 목록표 | .75 | .83 |
| 2 | 가족 자원 | .77 | .71 |
| 3 | 가족 대응 책력 | .76 | .77 |
| 4 | 가족 체계 유형 | .88 | .68 |

V. 연구 결과 및 해석

연구문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은 어떠한가?

사회인구학적 변인으로는 연령, 결혼지속연수, 가족생활주기, 가족수입, 직업유무, 교육수준, 종교, 가족형태로 선정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표 18>(뒤에 수록)에 나타난 바와 같다.

첫째, 연령에 따라서는 가족내 긴장사건이 20대, 30대, 50대, 40대 순으로 높았으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20대, 30대 순으로 하위영역에서 차가 나타났다. 20대에 가족내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은 가족원간의 적응과 부모역할 수행 등에서 긴장이 높은 결과이며 임신과 출산등은 가족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사건이다. 따라서 이 시기는 규범적 스트레스가 반영되는 연령이다. 가족자원은 전체자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친척, 이웃과의 교류를 통한 지원자원은 30대, 50대가 높고, 20대, 40대가 약간 낮다. 경제적 복지감은 50대가 20대, 30대, 40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정 불안정감지표도 20대, 40-5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30대와 50대에 친척, 이웃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심리적 자원량이 늘어나지만, 특히 50대 이후로는 경제적인 회복이 가능하며 자원량이 높아진다. 따라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가족자원량은 부분적으로 높아진다. 가족대응책략은 신앙에의 의지가 차이가 있는데 20-30대보다 40-50대 이후가 신앙의 의지를 통해 문제해결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의미있는 차이가 없게 보인다.

둘째, 결혼지속연수에 따라서는 임신-자녀출산에 따른 스트레스가 5년-10년미만인 경우가 높게 나타났고, 따라서 자녀의 질병과 간호의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25년이상인 경우도 질병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다른 경우보다 높았다. 이들은 이미 중년 이상으로 신체질병과 간호상 어려움이 있다. 전체 스트레스에서는 결혼 지속연수가 5-10년 미만이 87.75, 15-20년 미만이 65.14, 20-25년 미만, 25년 이상이 각각 50.95, 54.67, 5년 미만, 10-15년 미만이 각각 34.20, 26.40으로 나타났다. 즉 5년 미만, 10-15년 사이의 주부들은 비교적 가족 스트레스가 낮

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가족 자원은 결혼 지속 연수에 따라 차이가 없으나 재정적 불안정감은 결혼지속연수가 낮을수록 높다.

가족 대응책략은 5-10년 미만인 경우 사회적 지원 요청 방식을 다른 대응책략보다 더 많이 쓰고 있었으며 신앙에의 의지는 결혼 생활 15년 이상되면 그 방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부생활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신혼기, 학령 전기가 다른 생활주기보다 높으며 임신, 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학령전기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가족생활 단계상 부부의 적응과 자녀출산이 이 시기에 가족의 문제로 드러날 수 있음을 표현해 준다. 가족자원의 경우는 가족자부심과 의사소통을 통한 자원량은 학동기, 대학기, 노년기의 경우가 높으며, 경제적 복지감은 자녀가 대학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는 시기가 높다. 재정적 불안정감은 학동기까지는 다른 시기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적 바람직 성은 학동기, 대학기, 노년기가 다른 시기보다 높다. 따라서 전체 가족자원에서는 신혼기와 중고등 학교기가 비교적 다른 가족생활단계보다 낮은 편이다.

가족대응책략에서도 신앙에의 의지가 신혼기, 학령 전기보다 학동기이후 중고등학교기, 대학기, 진수노년기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김정옥(1990)의 연구는 3집단 묶음으로 가족생활주기를 표현하여 비교가 좀 어렵겠으나 그의 연구에서는 부부간 긴장과 임신, 출산에 따른 스트레스가 차이가 없게 나타나 본 연구와 불일치하고 있다. 가족대응책략에서는 종교에의 의지가 진수노년기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고 있었다.

넷째, 가족수입에 따라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직업의 변화와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가 50-100만원 수준이 높고 다음이 50만원 미만, 100-150만원 순이고 150만원 이상인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으나 직업의 변화와 이동으로 인한 하위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있어 1984년 연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가족수입

이 많은 집단일수록 가족자원량은 높은데, 특히 각 하위요인에서 가족자부심, 가족의 건강 및 성취, 경제적 풍요로움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친척과의 교류를 통한 자원은 소득과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차원을 통한 가족자원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정적 불안정감도 수입이 적을수록 높은 것은 당연 하나, 100만원 이상의 수입이 되어야 재정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의 대응책략도 가족수입과 긴밀하게 관련되는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원요청체계, 문제의 재해석력, 신앙에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요청, 수동적 대처와 다양한 책략을 모두 사용한다. 그러나 수동적 대처의 방법은 소득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낮으면 대응책략의 방법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족수입이란 객관적 지표는 자본주의 사회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주는 변수인 것 같다. 많은 연구에서 가정생활의 불만과 갈등, 긴장의 요인은 <생활비> 또는 <금전문제><경제적 빈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데(한국개발연구원, 1981, 정민자, 1984),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의 영역에서는 수입의 향상이 중요한 관건이다.

다섯째, 직업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상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많은 연구(Skinner, 1984; Hansen, 1979; McLanhan, 1983; 전세경, 1989)에서는 취업여성이나 직업이 있는 여성이 스트레스가 높고, 대응책략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직업의 유무의 단순차원보다 전문직, 비숙련직, 역할의 부여상태 등의 다양한 직업 차원에서 분류하여 추후 연구를 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여섯째, 교육수준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졸이 다른 교육수준보다 가족원의 출입과 전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보고했으나 전체스트레스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전체 가족자원량과 가족자부심, 경제적 풍요감은 전문대졸 이상일수록 높게 나타나 앞의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정민자, 1984; 김양희, 1989). 가족의 대응책략은 국줄이하인 경우가 신앙에의 의지, 문제의 재해석의 방법을 더 많이 쓰고 있었다.

일곱째, 종교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전체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으나 규칙위반과 관련하여 기독교가 다른 종교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에서는 전체 가족자원에서는 기독교·천주교가 가장 높고, 불교 기타, 없음 순위로 나타났다. 하위 영역에서는 가족자부심에서는 기독교(A) 천주교(B) 불교 없음 기타(C) 순으로 나타나서 종교가 가족자원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대응에서도 역시 기독교, 천주교일수록 다양한 책략을 사용하며 문제의 재해석은 기독교, 천주교, 기타가 없음, 불교보다 높고, 신앙에의 의지는 기독교가 가장 높았다. 전문가의 요청 역시 기독교, 천주교가 높게 나타나서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책략을 사용한다.

여덟째, 가족형태를 확대가족과 핵가족으로 분류하여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대응책략을 살펴보았을 때 차이가 없었다. 재정적 안정감은 확대가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구문제 2. 가족체계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대응책략은 어떠한가?

가족체계유형은 결속력, 적응력의 점수를 M ± 1SD를 근거로 4단계로 분류하여 16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6개의 유형을 다시 3유형으로 분류하는 극단가족, 중간범위가족, 균형가족으로 가족체계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실제로 문제가족을 진단할 때에 3분류 방법이 적당할 수도 있음을 제안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적용해 보았는데 <표 19>, <표 2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족스트레스에서는 전체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부생활상의 긴장은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 균형가족 순으로 높았다.

가족자원에서는 전체 가족자원은 균형가족, 중간범위가족, 극단가족순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사회적 바람직성도 균형가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대응책략상에는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선행연구(Olson, Lavee, 1991)에서는 가족체계유형은 4분면으로 나누는 방식을 택하여 보았을 때 규범적 스트레스, 예기치 않은 스트레스가 가족체계 유형에 따라 유의하게 차이가 났었다.

본 연구에서도 가족체계유형을 4분면으로 시도해 보았으나 유형3과 유형4가 너무 적은 빈도를 나타내어 더이상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추후에 더 많은 사례를 통하여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연구문제 3-1.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표 2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가족자원과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r = -.3578$ 로 유의하게 부적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 가족내 긴장사건과는 가족의 건강 및 성취, 전체가족자원과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부부생활 긴장스트레스는 가족자부심, 가족의 건강과 성취, 전체가족자원과 부적상관을 나타낸다. 임신기 자녀출산은 가족자부심, 가족의 건강과 성취, 친척파의 교류, 전체가족자원과 부적상관을 나타냈다. 가정경제긴장과 가족의 풍요로움과는 부정적 상관을 보이고, 직업변화의 이동과 전체가족자원, 질병과 가족의 건강과 성취, 상실과 가족의 건강과 성취, 가족원의 출입과 전환과 가족의 건강과 성취, 규칙위반과 가족의 건강과 성취간에 부적상관을 나타내고 있다. 즉, 가족자원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것은 선행연구(정민자, 1983; 전세경, 1989)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연구문제 3-2.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와 대응책략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에서는 〈표 22 참고〉 전문가의 도움요청이 부부생활 긴장만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게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수동적 대처방법은 부부생활, 임신 자녀출산, 가정 경제 긴장, 상실, 규칙위반의 하위요인과 긍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가족원의 출입과 전환, 규칙위반은 사회적 지원 요청 방법과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전체가족 스트레스는 전문가의 도움요청과 수동적 대처 방법 사용과 정적상관을 갖고 있다. 이것은 김정옥(1990)의 연구와 많은 부문에서 불일치하고 있다. 주부인 그들은 사회적 지원이나 종교에의 의지, 문제중심의 의식변화, 전략적 행동변화의 방법과 스트레스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했고 가족내 긴장도 사회적 지원과 종교에의 의지와 관련

이 있었고 직업전환 역시 사회적 지원과 종교의 의지 방법을 사용하고, 가족의 보호역시 사회적 지원, 종교의 의지, 상실은 종교에의 의지, 가족원의 출입은 사회적 지원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족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적극적으로 전문가를 찾거나, 아예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으로 대응책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계속 연구해 봄으로 상황에 따라 일관된 유형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연구문제 3-3. 정상가족의 경우, 가족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과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가족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과는 〈표 23〉에서 보듯이 매우 밀접하게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가족의 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 자원이 높을수록 친척파의 교류, 문제에 대한 재해석, 신앙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요청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가족에 대한 건강과 성취수준이 높은 가족은 수동적 대처방법과 같은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척, 이웃파의 교류가 높아 자원량이 많은 가족 역시 사회적 지원요청방법이 주요 대응책략 방법이고, 전문가의 도움 요청방법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경제적 풍요감을 통한 가족자원이 높은 경우 역시 친척파의 교류, 문제에 대한 재해석, 신앙에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 요청등의 방법을 쓰나 수동적 대처 방법은 쓰지 않는다. 대체로 전체 가족 자원량이 낮을수록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 4-1.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표 24〉에서 본 바와 같이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가족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가족자원이 적을수록, 가족원의 건강, 성취를 통한 가족자원이 적을수록, 가족내의 긴장, 부부문제, 직업의 이동, 규칙위반을 통한 가족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친척파의 교류 자체가 오히려 임신과 자녀출산 스트레스와는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는데, 자녀출산과 임신의 규범적 스트레스는 친척파의 교류로 인하여 오

허려 증폭되는 현상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적 풍요감을 통한 가족자원량이 적을수록 가족내의 긴장, 부부생활상의 문제, 직업의 변화과 이동, 규칙위반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따라서, 친척과의 교류 자원 외의 다른 가족자원량은 가족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앞의 많은 선행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런데 <표 30>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상가족의 경우는 부분적으로 상관관계를 갖고 실제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는 $r=-.3578$ 과의 관계이나 상담가족의 경우 $r=.7842$ 의 관계를 가짐으로써 강력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4-2.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의 대응책략과는 의미있는 관계가 있는가?

<표 26>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부부생활상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문제에 대한 재해석, 수동적 대처등의 방법을 쓰지 않으며 대응책략 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임신·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 수동적 대처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직업변환과 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역시 문제에 대한 재해석과는 부적 상관을 갖는다. 가족원의 사망과 상실로 인한 스트레스는 주로 신앙에의 의지와 전문가의 도움의 방법을 사용하여 스트레스를 대처하고자 한다. 규칙위반의 경우에는 문제에 대해 재해석과 의식의 변화를 거의 추구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표 22>의 정상가족과 비교했을 때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대응책략이 전문가의 도움요청과 수동적 대처의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에 상담가족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대응책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냄으로써 대조적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상담가족의 경우는 가족스트레스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응책략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한 것 같다.

연구문제 4-3.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과는 어떻게 관련되는가?

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은 <표 26>에서 보듯이 매우 강력한 관련을 갖고 있

다. 전체 가족자원과 대응책략은 $r=.5401$ 의 관련을 갖고 문제에 대한 재인식, 신앙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요청과 정적상관관계를 갖는다. 가족의 성취, 건강으로 인한 가족자원은 상관관계가 없다. 친척과의 교류를 통한 가족자원은 사회의 지원요청, 문제에 대한 재해석, 전문가의 도움요청과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경제적 복지감을 통한 가족자원량이 많을수록 사회의 지원요청 책략, 문제에 대한 재해석, 신앙에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요청, 수동적 대처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와 비교했을 때 건강한 가족의 경우는 전체 가족자원의 일관적으로 다양한 가족의 대응책략을 쓰되 수동적 대처방법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나 상담 가족의 경우는 전체 가족자원과 사회적 지원 요청, 문제에 대한 재해석의 방법이 유의하게 정적상관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약간의 다른 책략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문제 5. 정상-상담가족의 경우, 가족체계유형,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 모델은 어떻게 다른가?

첫째, 가족체계유형을 정상-상담가족에 따라 비교해 보았을 때 <표 27> <표 28>와 같았다. 16개유형으로 보았을 때 상담가족일수록 경직-과잉분리, 구조적-과잉분리, 과잉분리-혼동된 가족이 정상가족보다 많이 나타나며 연결-혼동된 가족, 융통적-과잉밀착가족 형태가 더 많게 나타났다. 이들을 3개유형의 가족체계로 분류했을 때는 상담가족인 경우, 극단수준의 가족은 20.5%, 중범위 가족이 39.7%, 균형가족이 39.7%, 정상가족인 경우는 극단가족이 13.1%, 중범위 가족이 25.8%, 균형가족이 61.1%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앞의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유순덕(1987)의 경우 임상가족의 경우 극단수준의 가족이 11.1%, 중간범위 가족이 38.5%, 균형가족이 50.4%순으로 나타났다.

John Clarke(1984)의 정신불안증과 신경증적 가족의 치료시에 본 가족체계유형의 측정을 해 본 결과 신경증 가족의 64%, 정신분열증 56%, 정상가족이 7%로 극단가족에 속해 있었다. 추후 치료후 검증을 했을 때는 물론 극단 가족에서 균형가족으로 증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족체계 유형의 평가는 상담가족 또는 문제가족과 정상가족의 기준을 평가해 주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정상가족과 상담가족의 가족스트레스를 비교해 본 결과〈표 29 참조〉 다른 영역에서는 차이가 없었고 주로 부부생활 문제와 임신과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스트레스 차이가 있었다. 즉 그들이 상담하고 있는 내용 역시 부부문제와 자녀문제인 것으로 보면 상담의 현황을 보고 하고 있었다. 즉 상담가족의 경우는 부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가 6.97점으로 정상가족 1.9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가족자원의 경우〈표 30〉는 모든 하위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상담가족일수록 가족의 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 가족의 건강 및 성취, 친척과의 교류, 경제적 풍요감, 전체 가족자원이 정상가족에 비해 결핍되어 있다. 사회적 바람직성도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족스트레스를 대처한 정상가족에 비해 자원이 결핍된 상황이며 아마도 그런 관계로 전문기관이나 사회적 도움을 긴급히 요청하는 상담소를 찾는 것 같다.

넷째, 가족의 대응책략 〈표 31〉에서 보면 사회조직(친척, 이웃)의 교류를 통한 지원체계, 문제의 재해석과 인식, 신앙에의 의지 방법은 정상가족이 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전문가의 도움요청은 상담가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이들은 이미 상담을 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대응책략상 전문가의 도움의 방법에 더 큰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현대사회의 복잡한 환경속에서 가족생활을 통해 느끼는 스트레스를 진단하고 그에 관련된 요인들인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 가족체계 유형 등을 종합으로 평가해 봄으로써 가족스트레스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특히 상담가족과 정상가족을 비교해 봄으로써 그에 관련된 상황과 가족체계 및 가족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경남, 울산시를 중심으로 하여 건강한 가족과 상담가족을 각각 231가족, 103가족

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측정도구는 재구조화시킨 가족스트레스 목록표(신뢰도 $\alpha=.76$), 가족체계평가지($\alpha=.88$)와 함께 기초배경 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연령, 결혼지속연수, 가족생활주기, 가족소득, 교육수준, 직업유무, 종교, 가족형태에 따라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의 대응책략을 살펴 보았다. 연령에서는 가족내 긴장 사건과 임신과 자녀출산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0대·30대 50대, 40대 순으로 높았는데, 이것은 규범적 스트레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족자원 중 경제적 복지감은 50대가 높게 나타났다. 결혼지속연수에서도 5-10년 미만인 경우가 임신과 자녀출산, 자녀의 질병과 간호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으며 25년이상이 되면 신체질병과 간호상의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족자원은 차이가 있으나 가족대응책략에서는 결혼생활이 짧을수록 사회적 지원요청 방식을 주로 쓰지만 결혼생활 15년 이상이 되면 신앙에 의지하는 방법이 유의하게 많았다. 따라서 규범적 스트레스의 인식과 함께, 혼가족으로 살아가는 현대생활에서 부부생활문제와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고 그들을 위한 사회지원체계가 요청된다.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전체스트레스는 차이가 없더라고 학령전기, 신혼기에 부부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임신·출산 스트레스가 학령전기에 높게 나타나고 가족자원의 경우는 가족자부심과 의사소통을 통한 자원량은 학동기, 대학기, 진수노년기가 높으나 경제적 복지감은 진수기가 되어야 높다. 신혼기나 중고등학교기가 비교적 자원이 다른 시기에 비해 낮은 편이다. 가족대응책략에서도 학동기 이후 신앙에의 의지가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족수입은 전체스트레스와 직접 상관은 없어도 가족자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친척과의 교류를 통한 자원과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나 소득이 높을수록 다양한 차원을 통한 가족자원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많은 선행연구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가족대응책략 사용에서도 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일수록 수동적 대처의 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사회의 지원체계요청, 문제의 재구성과 해석, 신앙에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 요청 등의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향상은 가족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가족의 갈등과 폭력, 가정생활의 불만과 긴장요인이 <경제적 빈곤>과 <생활비>, <금전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선행연구에서 보아 왔듯이 수입의 향상이 가족스트레스모델에서도 중요한 과제인 것 같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의 유무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실제 많은 연구에서 취업여성의 스트레스가 높다고 했다. 아마도 직업의 만족도 등이 모두 고려된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보아야 심충적 스트레스를 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간단한 지표로는 해석이 어렵다고 생각된다.

교육수준은 전문대출이상일수록 가족자원이 많고, 학력이 낮을수록 신앙에의 의지, 문제의 재해석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종교가 의외로 관련이 되고 있는데, 특히 기독교, 천주교 신앙인일수록 전체가족자원이 많았고 가족의 대응책략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가족과 확대가족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

둘째, Lavee와 Olson(1991)은 가족체계의 유형이 가족스트레스 모델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중요변수로 인식하여 연구하였는데 그들은 사분면을 사용한 가족체계유형과 가족스트레스와의 관계로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유형분류방법인 극단-중범위-균형가족으로 나누어 보았다. 그 결과 전체 가족스트레스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부생활상의 문제로 인한 긴장은 균형가족-중범위가족-극단가족순으로 유의하게 많아서 가족체계의 평가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자원량 역시 균형-중간범위-극단가족 순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가족대응책략 상에는 차이가 없었다. 다만 가족체계의 분류방법은 앞으로 더 연구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정상가족을 따로 분류하여 가족스트레스, 가족자원, 가족대응책략과의 관계를 보았을 때, 가

족스트레스는 가족자원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가진다. 각 하위 영역에 따라 유의한 상관관계가 다르나 대체로 가족자원량이 많다면 가족스트레스는 감소시킬 수 있다. 가족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인 대응책략과 가족 스트레스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하위영역에 따라 사용하는 대처방법이 조금씩 다름을 알 수 있는데 가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집단일수록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예 수동적 대처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자원량이 많은 가족일수록 다양한 대처방법을 사용하되 수동적 대처방법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상담가족의 경우는 정상가족에 비해 훨씬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자부심, 가족의 건강성 취자원이 적을수록 가족내의 긴장, 부부문제, 직업문제, 규칙위반을 통한 가족스트레스가 높다. 이들의 경우 친척과의 교류 자체가 임신과 자녀출산 스트레스와 정적상관을 이루고 있어, 오히려 친척과의 교류가 자원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증폭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특히 상담가족은 정상가족보다, 가족자원과 가족스트레스(정상가족: $r= .3578$, 상담가족: $r= -.7842$)의 관계가 강력함으로서 상담가족일수록 가족자원의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성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상담가족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가족의 대응책략기제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부적상관을 이루고 있어 정상가족의 적극적 대처 방법과는 대조를 이룬다. 물론 상담가족이더라도 가족자원이 풍부하다고 인지한 경우에는 사회의 지원요청, 문제의 재해석, 신앙에의 의지, 전문가의 도움 요청, 수동적 대처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고 보고했다.

다섯째, 정상가족과 상담가족을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는 선행결과를 요약해 볼 수 있었는데 가족체계유형을 분류했을 때 상담가족은 극단가족(20.5%), 중범위가족(39.7%), 균형가족(39.7%)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따라서 가족체계의 평가도구는 앞으로 가족상담이나 치료시에 객관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가족스트레스를 비교했을 때 그들의 상담내용이 주로 부부문제와 자녀문제가 주요내용이었음을 반영하듯 가족스트레스에서 점수차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가족자원의 경우에도 상담가족일수록 가족의 자부심과 커뮤니케이션, 가족의 건강성취, 친척과의 교류, 경제적 복지감이 정상가족에 비해 더 낮았고, 대응책략에서 보듯이 어떤 방법도, 정상가족보다 더 낮게 사용하나 전문가의 도움요청을 더 높은 점수를 보임으로써 그들은 자원의 결핍과 대응책략의 부족의 돌파구로서 상담기관을 찾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족스트레스 현상을 폭넓게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으며, 특히 가족체계 유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가치를 갖게 되었다. 특히 상담가족과 건강한 가족의 상태를 점검해 봄으로써 상담가족이 역시 가족의 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 기술이 부족하며, 그들에게 새로운 대응책략을 개발하도록 이끌어주며, 그들에게 가족자원을 다양한 차원에서 풍부하게 들려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의 인식이다. 또한 가족수입은 가족자원과 가족의 대응책략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실제로 가족의 소득을 중진시키는 것도 이 사회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다.

앞으로의 연구는 가족스트레스에 관련된 측정도구를 더욱 세련화시키고 표준화시켜서, 실제 가족 문제의 진단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전국차원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연구는 가족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대응책략과 특정문제와 주제별로 스트레스 모델을 계속 시도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1) 고병학·송옥현·신윤오, 한국인의 생활사건에 관한 예비적 연구 1: 생활사건척도, 신경정신의학, 제20권 1호, 1981.
- 2) 김명자, 중년기 부부의 가족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양식과 위기감, 대한가정학회지, 제29권 1호, 1991.
- 3) 김성천(역)·올리버 해리스(저), 가족치료, 원광대학교 출판국, 1987.
- 4) 김양희, 가족스트레스의 연구경향, 중앙대 가정대논집 제4집, 1986.
- 5) 김양희·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7권 1호, 1989.
- 6) 김영모, 한국사회복지의 제문제, 서울: 한국복지정책연구소, 1986.
- 7) 김윤희, 부부관계·부모·자녀 의사소통·가족기능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8) 김영규, 연령·성·사회계층별 일상생활상의 스트레스와 대응방법의 비교,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80.
- 9) 김정옥, 주부의 스트레스 요인 및 대응방법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여성문제 연구, 1988.
- 10) 김정옥·박순희, 가족스트레스관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8권 3호, 1990.
- 11) 김종옥(역)-미누친(원저), 구조적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1987.
- 12) 김종옥·김유숙(역)-S·미누친(원저), 구조적 가족치료의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법문사, 1988.
- 13) 김진희,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옹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14) 김혜래, 청소년 가출행동에 있어서 스트레스의 영향과 사회적 지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5.
- 15) 박종원, 청소년 정신박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1권 4호, 1982.
- 16) 배영숙, 정신병환자의 스트레스사건과 적응방법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 17) 배종렬, 가족의 일상사건과 스트레스 및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18) 성문선·성준(역)-버지니아 사티어(저), 가족 의사소통의 새로운 기법, — 사람만들기의 가정공학 —, 서울: 흥익제, 1988.
- 19) 소숙희,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심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0) 송성자, 한국 부부간의 의사소통유형과 가족문제에 관한 연구, 숭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21) 송성자, 가족관계와 가족치료, 서울: 홍익제, 1988.
- 22) 심상호, 스트레스정도와 정동장애, 신경정신의학, 제21권 3호, 1982.
- 23) 옥선화·정민자, 가족 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제2권 1호, 1984.
- 24) 유순덕, Circumplex Model에 입각한 한국의 임상 가족과 일반가족의 비교연구,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25) 이병윤 외 2인, 현대정신의학, 서울: 일호각, 1983.
- 26) 이영희, 가족스트레스와 대처, 대구대 사회복지 연구 제3집, 1985.
- 27)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80.
- 28) 이지순, 첫아이 출생후 부부의 지각과 가족의 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1.
- 29) 이명숙·임형빈, 스트레스사건과 적응행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10권 1호, 1980.
- 30) 장병옥, 도시주부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31) 전세경,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지원 및 적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32) 정민자,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가족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4.
- 33) 채서익·김범중, SPSS / PC+를 이용한 통계분석, 법문사, 1991.
- 34) 최동숙, 부부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 및 디스트레스 수준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7권 1호, 1989.
- 35) 최명구, 갈등장면에서의 감정—인지분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36) 최태진·강병조, 한국에서의 사회재적응 평가 척도에 관한 예비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제20권 2호, 1981.
- 37) 최해림,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86.
- 38) 한국개발연구원, 빈곤과 영세민 대책, 1981.
- 39) 한경미, 가족의 웅집성 및 적응성 유형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40) 한국여성개발원, 편부모 가족의 지원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1984.
- 41) 홍강의—정도언, 사회재적응 평가척도 제작, 신경정신의학, 제21권 1호, 1982.
- 42) Booth, A.: Wife's Employment and Husband's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November), 1979.
- 43) Burke, R.J. and Weir, T: Marital Helping Relationship: The Moderators between Stress and Well-being, Journal of Psycholog., 95 (January), 1977.
- 44) Cilly Schubert Walker and James L. Wlaker, "Stressors and Symptoms Predictive of Distress in Farmers," Family Relations, 1987.
- 45) Cobb, S.: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1976.
- 46) David H. Olson, Joyce Portner, Yoav Lavee, FACES III,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5.
- 47) Dean, A. and Lin, N.: The stress-buffering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65, 1977.
- 48) Denise A. Skinner,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Literature Review, Work and Family, Mayfield Publishing Company, 1984.
- 49) Hamilton, V. and Uarburton, D.M.: Human Stress and Cognition, New York: John Wiley

- & Sons, 1979.
- 50) Hamiton, I., McCubbin, Andreas Larsen & David H olson, F-cop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2.
- 51) Hansen, D.A. and Johnson, V.A.: Rethinking Family Stress Theory: Definitional Aspect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52) Hansen, S. L: A Family Life Cycle Approach to the Socioeconomic Attainment of Working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May), 1983.
- 53) Hurst, M.W., Jenkins, C.D. and Rose, R.M.: The Assessment of Life Chang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11, 1987.
- 54) Karen Davis-Brown and Sonya Salamon, "Farm Families in crisis An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Farm Family Reserch," Family Relations, 1987.
- 55) Kimmel, D.C.: Adulthood and Aging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0.
- 56) Korchin, S.J.: Modern Clinical Psychology, N.Y.: Harper International Edition, 1976.
- 57) McCubbin, H.: Joy, C.B., Cauble, A.X., Comau, J.K., Patterson, J.M., and Needle, R.H.: Family Stress and Coping: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November), 1980.
- 58) McCubbin, H., Wilson, L. and Patterson, J.: Family Inventory of Life Events and Changes (FILE), St. Paul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1981.
- 59) McCubbin, H., Comeau, J. and Harkins, J.: Family Inventory of Resources for Management (FIRM), St. Paul Mi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esota, 1983.
- 60) McLandahan, S.S.: Family Structure and Stress: A Longitudinal of Two Parents and Female-Headed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May), 1983.
- 61) Olson, D.H., Russell, C.S., and Sprenkle, D.H.: Marital and Family Therapy: A Decade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November), 1980.
- 62) Pakel, E.S. et al.: Life Events and Depression, Arch. Gen. Psychiatry, 21, 1970.
- 63) Pakel, E. S., Prusoff, B.A. and Uhlenhuth, E. H: Scaling of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ry, 25, 1971.
- 64) Pakel, E. S. and Uhkenhuth, E.H.: Scalining of Life Events, Arch. gen. Psychiat. Assdj., 1972.
- 65) Patrick, V. et al.: Life Events and Primary Affective Illuess, Acta. Psychiatry Scan, 58, 1978.
- 66) Pauline Boss, "Family Stress," The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chapter 25, Plenum Press, 1987.
- 67) Ramona Marotz-Baden and Deane Cowan, "Mother-in-Law and Daughter-in-Law The Effects of Proximity on Conflict and Stress," Family Relations, 1987.
- 68) Randy R. weigel and Daniel J. weigel, "Indentitying Stressors and Coping Strategies in Two-Generation Farm Families," Family Relations, 1987.
- 69) Sarason, I. G., Johnson, J.H. and Eigel, J.M.: Assessing the imact of Life Changes: Development of the Experience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981.
- 70) Thomson, K. C. and Hendrie, H.C.: Environmental Stress in Primary Depressive Illness, Arch. gen. Psychiatry, 26, 1972.
- 71) Yoav Lavee & D. H Olson, Family Types and Response to Stres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3, 1991.

〈표 3〉 연령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연 령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 | | |
| 20 대 | 24 | 4.25 | A | 11 | 18.46 | A | 13 | 3.15 | A | 14 | 8.93 | A | 16 | 5.63 | A | 15 | 2.80 | A | 16 | .50 | A | 18 | .72 | A | 19 | .53 | A | 631.83 | A |
| 30 대 | 61 | 3.53 | B | 31 | 20.77 | A | 54 | 1.72 | B | 54 | 11.57 | A | 53 | 5.36 | A | 54 | 6.41 | A | 50 | 2.42 | A | 52 | 1.19 | A | 51 | 1.57 | A | 2246.83 | A |
| 40 대 | 62 | 1.68 | C | 49 | 20.86 | A | 60 | .58 | C | 52 | 10.75 | A | 52 | 4.85 | A | 52 | 4.66 | A | 53 | 1.64 | A | 53 | 1.53 | A | 53 | .49 | A | 3552.83 | A |
| 50 대 | 20 | 3.85 | B | 14 | 18.29 | A | 17 | .64 | C | 16 | 8.38 | A | 15 | 4.80 | A | 17 | 5.53 | A | 16 | 1.81 | A | 16 | 2.63 | A | 17 | .11 | A | 941.22 | A |
| F 값 | | 3.50** | | 0.23 | | 4.60*** | | .72 | | .09 | | .09 | | 1.47 | | | 1.09 | | 1.28 | | 1.34 | | .077 | | | | | | |

〈표 4〉 연령에 따른 가족지원/가족대응책략

| 가족지원 연 령 | 가족 자부심 | | 가족의 건강·성취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지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비람직성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20 대 | 41 | 18.02 | A | 44 | 38.61 | A | 49 | 4.78 | B | 48 | 21.77 | B | 37 | 84.32 | A | 43 | .35 | A | 49 | 10.12 | B |
| 30 대 | 111 | 19.16 | A | 106 | 40.27 | A | 122 | 5.15 | A | 106 | 22.21 | B | 94 | 85.50 | A | 115 | .23 | B | 120 | 11.07 | B |
| 40 대 | 111 | 19.97 | A | 106 | 39.02 | A | 117 | 4.52 | B | 111 | 22.50 | B | 99 | 86.28 | A | 114 | .06 | C | 115 | 11.49 | A |
| 50 대 | 34 | 20.06 | A | 30 | 41.93 | A | 36 | 5.13 | A | 34 | 25.21 | A | 29 | 93.55 | A | 34 | .09 | C | 35 | 11.95 | A |
| F 값 | | .83 | | .88 | | 2.85* | | | | 2.13* | | | 1.41 | | | 8.49*** | | | 2.26 | | |

| 가족대응책략 연 령 | 사회적 지원요청 | | 문제에 대해 재 해석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20 대 | 49 | 22.18 | A | 45 | 23.16 | A | 46 | 7.89 | B | 47 | 8.72 | A | 49 | 7.59 | A | 43 | 69.47 | A |
| 30 대 | 117 | 23.62 | A | 117 | 23.67 | A | 118 | 9.33 | B | 121 | 8.91 | A | 124 | 7.13 | A | 107 | 72.39 | A |
| 40 대 | 118 | 22.63 | A | 112 | 23.36 | A | 117 | 10.71 | A | 115 | 8.49 | A | 117 | 6.84 | A | 111 | 71.96 | A |
| 50 대 | 35 | 24.20 | A | 35 | 23.49 | A | 36 | 11.56 | A | 35 | 8.91 | A | 35 | 7.03 | A | 35 | 75.06 | A |
| F 값 | | 1.25 | | 1.17 | | 5.66** | | | | .43 | | | 1.65 | | | .93 | | |

〈표 5〉 결혼지속 년수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결혼지속년수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 | | | |
| 5년미만 | 20 | 17.10 | A | 39 | 3.82 | A | 26 | 1.19 | B | 26 | 9.54 | A | 27 | 4.00 | A | 29 | 3.14 | B | 30 | 1.07 | B | 31 | .48 | B | 32 | .78 | A | 15 | 34.2 | D |
| 5~10년미만 | 8 | 23.86 | A | 25 | 4.12 | A | 17 | 3.00 | A | 21 | 12.00 | A | 21 | 7.86 | A | 18 | 9.83 | A | 15 | 3.87 | A | 19 | 2.68 | A | 18 | 2.5 | A | 4 | 37.75 | A |
| 10~15년미만 | 16 | 18.13 | A | 23 | 1.87 | A | 26 | 1.12 | B | 21 | 10.24 | A | 20 | 4.90 | A | 21 | 4.52 | B | 20 | 1.70 | B | 18 | .61 | B | 18 | .28 | A | 10 | 26.40 | D |
| 15~20년미만 | 11 | 22.73 | A | 17 | 2.29 | A | 16 | 1.63 | B | 14 | 12.00 | A | 16 | 5.19 | A | 16 | 6.06 | A | 15 | 2.07 | B | 16 | .62 | B | 16 | .94 | A | 7 | 35.14 | B |
| 20~25년미만 | 30 | 20.17 | A | 39 | 1.92 | A | 38 | .71 | B | 33 | 9.61 | A | 32 | 4.13 | A | 32 | 4.59 | B | 33 | 1.76 | B | 33 | 2.00 | B | 33 | .79 | A | 22 | 50.95 | C |
| 25년이상 | 17 | 23.94 | A | 22 | 3.64 | A | 19 | .48 | B | 18 | 11.06 | A | 20 | 5.78 | A | 18 | 5.80 | A | 19 | 1.68 | B | 19 | 2.16 | B | 20 | .10 | A | 12 | 54.67 | C |
| F 값 | | .76 | | 1.72 | | 2.30* | | .33 | | .99 | | 2.77* | | | | 1.10 | | 2.24* | | 1.17 | | 3.06** | | | | | | | | |

(표 6) 결혼지속년수에 따른 가족자원/가족대응책략

| 가족 자원 결혼지속년수 | 가족 자부심 | | | 가족의 건강·성취 |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비합적성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5년 미만 | 59 | 19.59 | A | 60 | 39.72 | A | 67 | 5.09 | A | 60 | 22.35 | A | 51 | 86.43 | A | 62 | 29 | A |
| 5~10년미만 | 43 | 19.33 | A | 42 | 39.45 | A | 48 | 5.15 | A | 43 | 23.12 | A | 38 | 85.58 | A | 44 | 20 | C |
| 10~15년미만 | 43 | 19.14 | A | 45 | 42.64 | A | 48 | 5.00 | A | 45 | 21.73 | A | 39 | 88.26 | A | 49 | 23 | B |
| 15~20년미만 | 45 | 18.82 | A | 39 | 37.89 | A | 46 | 4.80 | A | 44 | 22.55 | A | 36 | 88.28 | A | 45 | .09 | C |
| 20~25년미만 | 63 | 21.25 | A | 63 | 39.06 | A | 68 | 4.57 | A | 64 | 23.02 | A | 58 | 88.31 | A | 65 | .06 | C |
| 25년이상 | 39 | 18.57 | A | 33 | 40.24 | A | 40 | 4.80 | A | 39 | 23.56 | A | 33 | 88.55 | A | 35 | .09 | C |
| F 값 | | .99 | | | 1.01 | | | .87 | | | .42 | | | .40 | | 3.64** | | 1.53 |
| 가족대응책략 결혼지속년수 | 사회적 지원요청 | | | 문제에 대해 제해석 |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5년미만 | 64 | 23.28 | B | 64 | 23.83 | A | 63 | 8.43 | C | 62 | 8.89 | A | 67 | 7.28 | A | 59 | 71.66 | A |
| 5~10년미만 | 48 | 25.02 | A | 44 | 24.41 | A | 47 | 8.85 | C | 48 | 9.31 | A | 49 | 7.51 | A | 43 | 74.79 | A |
| 10~15년미만 | 48 | 21.44 | B | 47 | 22.23 | A | 49 | 10.06 | B | 51 | 8.41 | A | 50 | 6.98 | B | 43 | 69.26 | A |
| 15~20년미만 | 45 | 22.58 | B | 49 | 23.11 | A | 46 | 10.48 | A | 46 | 8.24 | A | 46 | 6.39 | B | 44 | 70.14 | A |
| 20~25년미만 | 67 | 23.27 | B | 46 | 24.22 | A | 66 | 10.64 | A | 65 | 8.72 | A | 66 | 7.02 | B | 63 | 74.24 | A |
| 25년이상 | 40 | 23.35 | B | 66 | 22.90 | A | 41 | 11.27 | A | 39 | 8.90 | A | 40 | 7.05 | B | 39 | 73.03 | A |
| F 값 | | 1.73* | | | 1.17 | | | 2.68* | | | .80 | | | 1.75 | | 1.05 | | |

(표 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가족생활주기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신 혼 기 | 32 | 1.67 | A | 11 | 5.73 | A | 3 | 1.33 | B | 4 | 10.00 | A | 5 | 4.00 | A | 5 | 7.20 | A | 4 | 25 | A | |
| 학령 전 | 24 | 18.08 | A | 44 | 4.14 | A | 36 | 2.39 | A | 37 | 12.16 | A | 37 | 7.43 | A | 36 | 5.94 | A | 35 | 2.51 | A | |
| 학 동 기 | 12 | 22.83 | A | 26 | 2.46 | B | 25 | .92 | B | 23 | 9.13 | A | 24 | 3.17 | A | 24 | 5.46 | A | 23 | 1.30 | A | |
| 중 · 고등 기 | 12 | 22.08 | A | 16 | 2.31 | B | 16 | 1.63 | B | 15 | 12.40 | A | 15 | 3.36 | A | 15 | 4.93 | A | 15 | 1.53 | A | |
| 대 학 기 | 30 | 21.00 | A | 31 | 1.23 | B | 32 | .84 | B | 28 | 11.54 | A | 29 | 5.83 | A | 29 | 4.83 | A | 31 | 1.97 | A | |
| 진수 · 노년기 | 21 | 19.07 | A | 27 | 3.07 | B | 25 | 24 | B | 24 | 9.08 | A | 23 | 4.74 | A | 24 | 4.75 | A | 23 | 1.39 | A | |
| F 값 | | .28 | | | 2.63* | | | 1.97* | | | .85 | | | 1.34 | | | .27 | | | .45 | | 1.77 |
| | | | | | | | | | | | | | | | | | | | | .67 | | .49 |

〈표 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지원/가족대응책략

〈표 9〉 기종 수입에 따른 기종 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수 수 입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 | | |
| 50만원미만 | 11 | 12.73 | B | 17 | 4.47 | A | 16 | 1.75 | A | 14 | 10.57 | A | 12 | 5.92 | B | 12 | 6.00 | A | 14 | 3.36 | A | 14 | 2.00 | A | 14 | 2.29 | A | 633.00 | B |
| 50-100만원미만 | 26 | 24.54 | A | 43 | 3.28 | A | 36 | 1.42 | A | 36 | 11.97 | A | 37 | 7.97 | A | 35 | 5.49 | A | 35 | 2.26 | A | 38 | 1.82 | A | 39 | .69 | A | 1568.47 | A |
| 100-150만원미만 | 39 | 19.72 | A | 55 | 1.98 | A | 49 | 1.04 | A | 45 | 9.27 | A | 48 | 3.77 | B | 50 | 5.00 | A | 46 | 1.41 | A | 46 | 1.17 | A | 47 | .55 | A | 2748.00 | B |
| 150-200만원미만 | 7 | 17.43 | A | 20 | 2.85 | A | 15 | 1.33 | A | 15 | 9.87 | A | 15 | 4.47 | C | 15 | 6.33 | A | 14 | 1.14 | A | 15 | .60 | A | 14 | .14 | A | 735.71 | B |
| 200만원이상 | 14 | 21.64 | A | 20 | 3.40 | A | 18 | 1.11 | A | 17 | 10.88 | A | 16 | 2.69 | C | 18 | 3.94 | A | 17 | 2.06 | A | 17 | 1.71 | A | 17 | .88 | A | 1138.09 | B |
| F 값 | | 1.79 | | 1.43 | | | 2.26 | | .48 | | 2.70* | | .34 | | .86 | | .64 | | .98 | | 1.99 | | | | | | | | |

(표 10) 가족수입에 따른 가족자원/대응책략

| 가족 자원 가족 수입 | 가족 자부심 | | 가족의 건강·성취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50만원미만 | 21 | 14.43 | B | 23 | 34.22 | B | 임 29 | 8.85 | A | 27 | 16.56 | D | 18 | 66.56 | B | | | |
| 50~100만원미만 | 86 | 19.77 | A | 86 | 39.65 | B | 93 | 10.06 | A | 82 | 21.21 | C | 75 | 86.00 | A | | | |
| 100~150만원미만 | 96 | 20.09 | A | 94 | 41.58 | A | 100 | 10.48 | A | 98 | 23.23 | B | 88 | 89.81 | A | | | |
| 150~200만원미만 | 38 | 21.03 | A | 36 | 41.33 | A | 41 | 10.64 | A | 38 | 25.61 | A | 32 | 92.50 | A | | | |
| 200만원이상 | 35 | 21.54 | A | 29 | 40.04 | A | 36 | 11.27 | A | 35 | 27.09 | A | 29 | 94.17 | A | | | |
| F 값 | | 3.76*** | | | 2.67* | | | .76 | | | 14.60*** | | | 7.42*** | | | | |
| | | | | | | | | | | | | | | | 7.50*** | | | |
| | | | | | | | | | | | | | | | 2.79* | | | |
| 가족대응책략 가족 수 입 | 사회적 지원요청 | | 문제에 대해 재해석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50만원미만 | 28 | 19.54 | B | 26 | 20.81 | C | 25 | 7.80 | D | 22 | 7.56 | B | 28 | 7.54 | A | 23 | 61.91 | D |
| 50~100만원미만 | 90 | 22.81 | A | 88 | 23.01 | C | 88 | 8.84 | D | 90 | 8.66 | B | 93 | 6.77 | A | 83 | 69.59 | C |
| 100~150만원미만 | 102 | 23.56 | A | 99 | 23.55 | B | 103 | 10.15 | C | 103 | 8.61 | B | 103 | 7.12 | A | 99 | 73.08 | C |
| 150~200만원미만 | 42 | 23.14 | A | 39 | 25.18 | A | 42 | 11.24 | B | 42 | 8.91 | A | 42 | 7.52 | A | 39 | 76.15 | B |
| 200만원이상 | 36 | 25.19 | A | 36 | 25.44 | A | 36 | 12.19 | A | 36 | 10.20 | A | 36 | 7.31 | A | 35 | 79.77 | A |
| F 값 | | 3.70*** | | | 3.87*** | | | 5.06*** | | | 2.94* | | | 1.47 | | | 6.74*** | |

(표 11) 직업유무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직업유무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유 | 25 | 16.56 | 45 | 3.51 | 39 | 1.61 | 36 | 11.75 | 37 | 4.59 | 36 | 5.25 | 34 | 1.24 | 36 | 1.08 | 35 | .69 | 16 | 42.50 |
| 무 | 77 | 21.55 | 116 | 2.70 | 100 | 1.09 | 95 | 10.36 | 95 | 5.33 | 97 | 5.48 | 97 | 2.09 | 98 | 1.58 | 100 | .89 | 53 | 49.17 |
| F 값 | | 2.81* | | | 1.27 | | | 1.08 | | | .63 | | .30 | | | .03 | | 1.24 | | .68 |
| | | | | | | | | | | | | | | | | | | | | .09 |
| | | | | | | | | | | | | | | | | | | | | .43 |

(표 12) 직업유무에 따른 가족자원/가족대응책략

| 직업유무 가족자원 | 가족 자부심 | | 가족의 건강-성취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유 | 83 | 18.54 | 82 | 38.98 | 90 | 4.61 | 88 | 22.09 | 75 | 84.65 | 86 | .17 | 88 | 11.28 |
| 무 | 198 | 20.14 | 189 | 40.89 | 216 | 4.97 | 196 | 23.13 | 171 | 88.58 | 201 | .16 | 213 | 11.22 |
| F 값 | | 2.87 | | .94 | | 2.59 | | 1.51 | | 2.11 | | .01 | | .02 |

| 직업 유 무 가족대응책략 | 사회적 지원요청 | | 문제에 대해 재해석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유 | 89 | 22.44 | 85 | 23.87 | 88 | 10.22 | 89 | 8.75 | 89 | 6.91 | 83 | 72.25 |
| 무 | 211 | 23.42 | 205 | 23.41 | 211 | 9.72 | 210 | 8.73 | 217 | 7.14 | 195 | 72.17 |
| F 값 | | 1.58 | | .44 | | .62 | | .00 | | .86 | | .00 |

(표 13)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교육 수준 가족스트레스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병 | | 상실 | | 전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국 중 | 9 | 13.00 | B | 15 | 1.67 | A | 14 | .14 | A | 13 | 10.23 | A | 12 | 2.92 | B | 13 | 3.31 | A | 13 | .92 | B |
| 중 졸 | 35 | 24.34 | A | 47 | 3.30 | A | 44 | 1.80 | A | 45 | 12.31 | A | 39 | 5.46 | B | 42 | 4.17 | A | 38 | 2.03 | A |
| 고 졸 | 40 | 19.13 | B | 70 | 3.14 | A | 57 | 1.35 | A | 49 | 9.27 | A | 53 | 4.72 | B | 54 | 5.76 | A | 56 | 1.73 | B |
| 대 졸 | 20 | 19.00 | B | 34 | 2.76 | A | 28 | .79 | A | 28 | 10.40 | A | 31 | 6.45 | A | 28 | 6.93 | A | 27 | 2.19 | A |
| F 값 | | .37 | | .64 | | 1.73 | | .93 | | .90 | | 1.53 | | .36 | | .76 | | .56 | | 1.16 | |

(표 14) 교육수준에 따른 가족자원/가족내응책략

| 가족 자원 가족 수입 | 가족 자부심 | | | 가족의 건강·성취 |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가족 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국 졸 | 28 | 18.96 | B | 26 | 38.54 | B | 29 | 4.93 | B | 27 | 21.74 | B | 25 | 63.28 | B | 28 | .14 | A |
| 중 졸 | 77 | 17.89 | B | 76 | 38.30 | B | 86 | 4.49 | B | 78 | 21.18 | B | 66 | 83.90 | B | 83 | .12 | A |
| 고 졸 | 127 | 19.21 | B | 120 | 40.08 | A | 137 | 4.98 | A | 129 | 22.15 | B | 103 | 86.01 | B | 129 | .20 | A |
| 대 졸 | 60 | 22.85 | A | 61 | 42.18 | A | 67 | 5.16 | A | 62 | 25.16 | A | 55 | 95.09 | A | 62 | .16 | A |
| F 값 | | 5.91*** | | | 1.80 | | | 2.18 | | 3.63** | | | 4.21** | | | .84 | | .61 |

| 가족대응 교육수준 | 사회적 지원요청 | | | 문제에 대해 재 해석 | | | 신앙의 의지 |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 수동적 대처 | | | 전체 대응책략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국 졸 | 28 | 23.82 | A | 25 | 22.80 | B | 28 | 11.43 | A | 28 | 8.04 | A | 29 | 6.48 | A | 25 | 73.12 | B |
| 중 졸 | 87 | 22.26 | A | 82 | 22.63 | B | 83 | 10.45 | B | 85 | 8.56 | A | 86 | 7.13 | A | 78 | 70.17 | B |
| 고 졸 | 134 | 23.03 | A | 133 | 23.65 | A | 136 | 9.35 | B | 135 | 8.79 | A | 138 | 7.27 | A | 126 | 72.14 | B |
| 대 졸 | 65 | 24.28 | A | 64 | 24.67 | A | 65 | 9.75 | B | 65 | 9.15 | A | 67 | 6.94 | A | 62 | 74.90 | B |
| F 값 | | 1.46 | | | 1.88 | | | 1.81 | | | 1.06 | | | 1.36 | | | 1.24 | |

(표 15) 종교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종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없 음 | 22 | 22.77 | A | 38 | 4.05 | A | 30 | 1.5 | A | 29 | 7.89 | A | 32 | 3.72 | A | 29 | 2.76 | B | 30 | .90 | B |
| 기독교 | 13 | 22.00 | A | 27 | 2.00 | A | 24 | 1.92 | A | 23 | 10.83 | A | 19 | 5.63 | A | 20 | 6.45 | A | 20 | 2.90 | A |
| 천주교 | 14 | 16.71 | A | 23 | 2.87 | A | 18 | 1.28 | A | 17 | 8.64 | A | 20 | 3.95 | A | 20 | 6.45 | A | 17 | 1.88 | B |
| 불 교 | 53 | 20.11 | A | 72 | 2.75 | A | 66 | .85 | A | 62 | 12.21 | A | 60 | 6.10 | A | 64 | 5.55 | A | 61 | 1.57 | B |
| F 값 | | .69 | | | 1.04 | | | 1.07 | | | 1.90 | | | 1.11 | | | 2.11 | | | 1.74 | |
| | | | | | | | | | | | | | | | | | | | | 1.85 | |
| | | | | | | | | | | | | | | | | | | | | 3.01* | |
| | | | | | | | | | | | | | | | | | | | | | 2.47 |

〈표 16〉 종교에 따른 가족자원/대응책략

| 종교 | 가족자부심 | | | 가족의 건강·성취 | | | 친척과의 교류 | | | 경제적 풍요감 | | | 전체가족 자원 | | | 재정 불안정감 |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없음 | 69 | 17.38 | C | 61 | 37.36 | A | 72 | 4.67 | A | 68 | 21.44 | B | 59 | 80.78 | C | 69 | .19 | A | 71 | 9.78 | B |
| 기독교 | 44 | 22.23 | A | 42 | 41.76 | A | 51 | 5.33 | A | 42 | 24.71 | A | 34 | 94.97 | A | 47 | .19 | A | 49 | 12.02 | A |
| 천주교 | 31 | 20.87 | B | 31 | 39.68 | A | 35 | 5.09 | A | 33 | 23.03 | B | 27 | 91.37 | A | 34 | .09 | A | 36 | 11.97 | A |
| 불교 | 141 | 19.33 | C | 142 | 40.09 | A | 153 | 4.75 | A | 147 | 23.57 | B | 129 | 86.37 | B | 143 | .17 | A | 151 | 11.34 | A |
| 기타 | 7 | 20.71 | C | 7 | 45.00 | A | 7 | 4.57 | A | 5 | 22.40 | B | 5 | 90.20 | B | 7 | .14 | A | 7 | 11.14 | B |
| F 값 | | 4.44** | | | 1.67 | | | 1.84 | | | 1.84 | | | 4.26** | | | .64 | | | 5.30*** | |

| 가족대응 교육수준 | 사회적 지원요청 | | | 문제에 대해 재해석 | | | 신앙의 의지 |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 수동적 대처 | | | 전체 대응책략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없음 | 67 | 23.27 | A | 66 | 22.48 | B | 68 | 5.65 | C | 69 | 8.51 | B | 72 | 7.15 | A | 62 | 66.03 | C |
| 기독교 | 51 | 23.77 | A | 52 | 24.71 | A | 50 | 13.46 | A | 519 | 9.53 | A | 52 | 6.92 | A | 48 | 78.60 | A |
| 천주교 | 37 | 23.49 | A | 35 | 25.23 | A | 37 | 11.54 | B | 37 | 9.87 | A | 37 | 7.14 | A | 35 | 77.34 | A |
| 불교 | 151 | 22.69 | A | 143 | 23.13 | B | 150 | 10.05 | B | 148 | 8.30 | B | 151 | 7.06 | A | 139 | 71.18 | B |
| F 값 | | .48 | | | 3.19* | | | 36.82*** | | | 4.29** | | | .15 | | | 9.12*** | |

〈표 17〉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가족 형태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자녀출산 | | 가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병 | | 상실 | | 전환 | | 구축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부부가족 | 84 | 20.43 | 136 | 2.83 | 116 | 1.24 | 109 | 10.58 | 109 | 5.19 | 113 | 4.76 | 108 | 1.79 | 112 | 1.14 | 112 | .69 | 58 | 47.26 |
| 확대가족 | 18 | 20.33 | 26 | 69 | 23 | .96 | 22 | 9.95 | 22 | 4.23 | 21 | 6.47 | 24 | 1.00 | 23 | 1.87 | 24 | .21 | 13 | 51.31 |
| F 값 | | .01 | | .03 | | .23 | | .09 | | .37 | | 1.35 | | 1.26 | | 1.60 | | .65 | | .14 |

〈표 18〉 가족형태에 따른 가족자원/가족대응책략

| 가족자원 가족형태 | 가족 자부심 | | 가족의 건강·성취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부부가족 | 236 | 19.53 | 229 | 40.28 | 257 | 4.81 | 238 | 22.65 | 205 | 87.26 | 244 | .19 | 255 | 11.12 |
| 학대가족 | 49 | 19.16 | 47 | 37.85 | 54 | 4.96 | 51 | 22.72 | 43 | 84.65 | 50 | .04 | 52 | 11.32 |
| F 값 | .10 | | 2.19 | | .33 | | .01 | | .60 | | 6.81** | | .14 | |

| 가족대응책략 가족 형태 | 사회적 지원요청 | | 문제에 대해 재 해석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N | 평균 |
| 부부가족 | 254 | 22.77 | 245 | 23.43 | 251 | 9.79 | 253 | 8.71 | 256 | 7.07 | 237 | 71.07 |
| 학대가족 | 54 | 24.00 | 51 | 23.84 | 54 | 10.11 | 56 | 8.43 | 54 | 7.16 | 50 | 73.04 |
| F 값 | 2.05 | | .25 | | .18 | | .41 | | .10 | | .37 | |

〈표 19〉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스트레스

| 가족스트레스 가족 체계 | 가족내 긴장사건 | | 부부생활 긴장 | | 임신· 자녀출산 | | 기정경제 긴장 | | 직업 이동 | | 질 병 | | 상 실 | | 전 환 | | 규칙위반 | | 전체 스트레스 | | |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 | | | |
| 극 단 | 17 | 22.17 | A | 22 | 3.05 | B | 17 | 1.94 | A | 21 | 8.86 | A | 21 | 4.57 | A | 20 | 6.15 | A | 20 | 2.50 | A | 20 | 2.15 | A | 21 | 1.71 | A | 11 | 61.73 | A |
| 중범위 | 29 | 20.38 | A | 43 | 4.58 | A | 37 | 1.00 | A | 31 | 12.23 | A | 32 | 4.84 | A | 35 | 5.60 | A | 33 | 1.51 | A | 35 | 1.11 | A | 35 | .71 | A | 19 | 43.32 | A |
| 균 형 | 52 | 19.67 | A | 78 | 2.15 | B | 75 | .91 | A | 19 | 10.10 | A | 69 | 5.55 | A | 69 | 5.01 | A | 68 | 1.99 | A | 69 | 1.64 | A | 69 | .80 | A | 37 | 45.81 | A |
| F 값 | .33 | | 4.65** | | 1.28 | | 1.04 | | 21 | | .25 | | .38 | | .70 | | .63 | | 1.03 | | | | | | | | | | | |

〈표 20〉 가족 체계 유형에 따른 가족자원/가족대응책략

| 가족 자원 가족 체계 | 가족 자부심 | | 가족의 건강·성취 | | 친척과의 교류 | | 경제적 풍요감 | | 전체 가족자원 | | 재정 불안정감 | | 사회적 바람직성 |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극 단 | 37 | 17.95 | A | 38 | 39.45 | B | 39 | 22.56 | A | 39 | .15 | A | 36 | 83.33 | B | 39 | .15 | A | 41 | 10.10 | B |
| 중범위 | 77 | 19.04 | A | 73 | 37.71 | B | 76 | 22.50 | A | 77 | .13 | A | 70 | 84.50 | B | 77 | .13 | A | 79 | 10.90 | B |
| 균 형 | 138 | 20.38 | A | 139 | 40.94 | A | 141 | 23.23 | A | 147 | .12 | A | 123 | 89.40 | A | 147 | .12 | A | 149 | 11.91 | A |
| F 값 | 2.15 | | | 2.31 | | | .36 | | | 2.13 | | | 2.13* | | | .21 | | | 5.40* | | |

| 가족스트레스 가족 체계 | 사회적 지원요청 | | 문제에 대해 재 해석 | | 신앙의 의지 | | 전문가의 도움요청 | | 수동적 대처 | | 전체 대응책략 | | | | | | | |
|-----------------|-------------|-------|----------------|------|-----------|----|--------------|------|-----------|-----|------------|----|-----|------|----|-----|-------|---|
|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N | 평균 | 집단 | | | |
| 극 단 | 40 | 23.23 | A | 42 | 10.57 | A | 40 | 9.00 | A | 40 | 9.0 | A | 41 | 6.88 | A | 37 | 73.62 | A |
| 중범위 | 76 | 23.79 | A | 78 | 9.30 | A | 80 | 8.82 | A | 80 | 8.82 | A | 80 | 7.06 | A | 74 | 72.32 | A |
| 균 형 | 144 | 23.35 | A | 146 | 10.09 | A | 145 | 8.58 | A | 145 | 8.58 | A | 150 | 7.14 | A | 138 | 72.20 | A |
| F 값 | .21 | | | 1.09 | | | .38 | | | .39 | | | .27 | | | .13 | | |

〈표 21〉 정상가족: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의 상관관계

| 자 원 스트레스 | 가 족 자부심 | 가 족 의 건강-성취 | 친척과의 교 류 | 경제적 풍요감 | 전체가족 자 원 |
|-------------|------------|----------------|-------------|------------|-------------|
| 가족내간장사건 | -.1018 | -.5760*** | -.3194** | .1904 | -.3199** |
| 부부생활 긴장 | -.4536*** | -.3826*** | -.0931 | -.0890 | -.4292*** |
| 임신-자녀출산 | -.2626* | -.2407* | -.2310* | -.1824 | -.3337** |
| 가정경제 긴장 | -.1352 | -.2912** | -.1116 | -.2453** | -.3207** |
| 직업 이동 | -.1290 | -.1955 | -.1782 | -.2006 | -.2577** |
| 질 병 | .0116 | -.2423** | -.0281 | -.0445 | -.1134 |
| 상 실 | .0047 | -.3391** | .0102 | .1007 | -.1417 |
| 전 환 | -.0165 | -.3560*** | -.0457 | -.0443 | -.1756 |
| 규 칙 위 반 | -.0848 | -.3384** | .0594 | -.0442 | -.2258 |
| 전체 스트레스 | -.1452 | -.4836*** | -.1953 | -.0346 | -.3578*** |

〈표 22〉 정상가족 :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

| 가족대응책략 가족스트레스 | 사회적 지원요청 | 제예대해 재 해 석 | 신양의 의 지 | 전문가의 도움요청 | 수동적 대 처 | 전 체 대응책략 |
|------------------|-------------|---------------|------------|--------------|------------|-------------|
| 가족내간장사건 | -.0570 | .2045 | -.0668 | .2547* | .1477 | .1040 |
| 부부생활 긴장 | -.0035 | -.0402 | .0370 | .1335 | .3789*** | .0807 |
| 임신-자녀출산 | .0258 | .1360 | .0734 | .3315** | .3722*** | .2150* |
| 가정경제 긴장 | -.1439 | .0025 | -.1457 | .2594* | .2393* | .0965 |
| 직업 이동 | -.0662 | -.0637 | -.0149 | .2101* | .2428* | .0239 |
| 질 병 | .0789 | .1842 | -.0251 | .5714*** | .0564 | .2260* |
| 상 실 | .1127 | .1898 | .1009 | .5094*** | .2545* | .3043*** |
| 전 환 | .2635* | .1879 | -.0062 | .6573*** | .1530 | .3439*** |
| 규 칙 위 반 | .2231* | .1278 | .0304 | .5774*** | .3538** | .3294* |
| 전체 스트레스 | .0719 | .1440 | -.0439 | .4823*** | .2883** | .2140* |

〈표 23〉 정상가족: 가족자원과 가족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

| 가족대응책략 가족 자원 | 사 회 적 지원요청 | 문제에 대해 재 해 석 | 신양의 의 지 | 전문가의 도움요청 | 수동적 대 처 | 전 체 대응책략 |
|-----------------|---------------|-----------------|------------|--------------|------------|-------------|
| 가족자부심 | .4213*** | .5825*** | .2668*** | .3621*** | .0374 | .5458*** |
| 가족의건강-성취 | -.0325 | -.0675 | -.0437 | -.0983 | -.3161*** | -.0901 |
| 친척과의교류 | .4717*** | .1252 | .0161 | .2309*** | -.1013 | .2751*** |
| 경제적풍요감 | .2976*** | .4607* | .2991*** | .3313*** | .0065 | .4536*** |
| 전체가족자원 | .3331*** | .4036*** | .2583*** | .2564*** | -.1729** | .3970*** |

〈표 24〉 상담가족: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자원과의 상관관계

| 자 원 스트레스 | 가 족 자부심 | 가 족 의 건강-성취 | 친척과의 교 류 | 경제적 풍요감 | 전 체 가족자원 |
|-------------|------------|----------------|-------------|------------|-------------|
| 가족내긴장사건 | -.7100* | -.6394* | .1494 | -.8239* | -.7327* |
| 부부생활 긴장 | -.7655* | -.8682** | -.0667 | -.7404* | -.8583** |
| 임신-자녀출산 | -.1231 | -.1804 | .7653* | -.1964 | -.1494 |
| 가정경제 긴장 | .0834 | -.0627 | -.0060 | -.0122 | -.0084 |
| 직업 이동 | -.7112* | -.9108** | -.0310 | -.6173* | -.8351* |
| 질 병 | -.1472 | .0411 | -.1206 | -.0386 | -.0324 |
| 상 실 | -.1421 | .0049 | -.0698 | -.0109 | -.0419 |
| 전 환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 |
| 규 칙 위 반 | -.8241* | -.9167*** | -.0698 | -.7274* | -.9215*** |
| 전체 스트레스 | -.7065* | -.7744* | -.0493 | -.7277* | -.7842* |

〈표 25〉 상담가족: 가족스트레스와 가족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

| 가족대응책략 가족스트레스 | 사 회 적 지원요청 | 문제에 대해 재 해 석 | 신앙의 의 지 | 전문가의 도움요청 | 수동적 대 처 | 전 체 대응책략 |
|------------------|---------------|-----------------|------------|--------------|------------|-------------|
| 가족내긴장사건 | .2557 | -.2196 | -.2785 | .0617 | -.3437 | -.0890 |
| 부부생활 긴장 | -.2516 | -.5513* | -.1969 | -.3361 | -.6315** | -.4545* |
| 임신-자녀출산 | .3844 | .2027 | -.0314 | .2658 | -.4543** | .1821 |
| 가정경제 긴장 | .1675 | .3526 | .3332 | -.0155 | -.3042 | .2311 |
| 직업 이동 | -.0678 | -.5946* | -.1401 | -.1841 | -.3380 | -.3166 |
| 질 병 | .1403 | -.1930 | .1712 | .2541 | .1050 | .1088 |
| 상 실 | .2337 | .1853 | .4523* | .4857* | -.1267 | .3544 |
| 전 환 | .4430 | .1489 | -.0175 | .2390 | -.2390 | .2941 |
| 규 칙 위 반 | -.3235 | -.7057** | -.2747 | -.4183 | -.4183 | -.5302* |
| 전체 스트레스 | .1821 | -.2410 | -.0335 | .0186* | .4940* | -.0707 |

〈표 26〉 상담가족 : 가족자원과 가족대응책략과의 상관관계

| 가족대응책략 가 족 자 원 | 사회적 지원요청 | 문제에 대해 재 해 석 | 신앙의 의지 | 전문가의 도움요청 | 수동적 대처 | 전체 대응책략 |
|-------------------|-------------|-----------------|-----------|--------------|-----------|------------|
| 가족자부심 | .5408*** | .7592*** | .2277* | .3500** | .0782 | .6385*** |
| 가족의 건강-성취 | .1938 | .4012** | .0176 | -.0291 | -.1447 | .2027 |
| 친척과의 교류 | .6516*** | .4475*** | -.0542 | .3548** | .0764 | .4958*** |
| 경제적 풍요감 | .5383*** | .7202** | .2859* | .3376** | .2475* | .6620*** |
| 전체 가족자원 | .4745*** | .6889*** | .1685 | .2275 | .0375 | .5401*** |

〈표 27〉 정상가족의 체계 유형

| 정 상 가 족 | 결속력\적응력 | 경직된 | 구조적 | 융통적 | 흔동된 | 합 계 |
|------------------|---------|----------|----------|----------|----------|------------|
| | 과잉분리 | 8(40.1) | 8(11.4) | 2(2.8) | 1(2.9) | 20 |
| 분 리 | 7(31.8) | 36(51.4) | 21(29.2) | 4(11.8) | 68 | |
| | 연 결 | 5(22.7) | 24(34.3) | 40(55.5) | 14(41.2) | 83 |
| 과잉밀착 | 1(4.5) | 2(2.9) | 9(12.5) | 15(44.1) | 27 | |
| | 합 계 | 22(11.1) | 70(35.4) | 72(36.4) | 34(17.2) | 198(100.0) |

| 상 담 가 족 | 결속력\적응력 | 경직된 | 구조적 | 융통적 | 흔동된 | 합 계 |
|------------------|---------|----------|----------|----------|---------|-----------|
| | 과잉분리 | 12(66.7) | 16(44.4) | 0(00.0) | 1(11.1) | 29 |
| 분 리 | 4(22.2) | 10(27.8) | 5(33.3) | 2(22.2) | 21 | |
| | 연 결 | 2(11.1) | 8(22.2) | 8(53.3) | 3(33.3) | 21 |
| 과잉밀착 | 0(00.0) | 2(0.06) | 2(13.4) | 3(33.3) | 7 | |
| | 합 계 | 18(23.1) | 36(46.2) | 15(19.2) | 9(11.5) | 78(100.0) |

〈표 28〉 3유형의 가족체계 비교

| 가족체계유형 | 정상가족 | 상담가족 | 합 계 |
|--------|-----------|----------|----------------------|
| 극 단 가족 | 26(13.1) | 16(20.5) | 0(00.0) |
| 중범위 가족 | 51(25.8) | 31(39.7) | 5(33.3) |
| 균 형 가족 | 121(61.1) | 31(39.7) | 8(53.3) |
| | 198(71.7) | 78(28.3) | $\chi^2=10.33^{***}$ |

〈표 29〉 가족스트레스의 비교

| 가족스트레스 | 정상가족 | 상담가족 | F 값 |
|----------|------------|-----------|----------|
| 가족내 긴장사건 | 84(19.52) | 21(23.14) | 1.34 |
| 부부생활 긴장 | 132(1.92) | 35(6.97) | 52.37*** |
| 임신-자녀출산 | 118(.92) | 26(2.73) | 10.34*** |
| 가정경제 긴장 | 108(10.19) | 28(12.21) | 1.15 |
| 직업 이동 | 112(5.24) | 24(4.63) | .16 |
| 질 병 | 115(5.11) | 23(5.90) | .29 |
| 상 실 | 110(1.78) | 25(1.96) | .04 |
| 전 환 | 113(1.59) | 26(.69) | 1.86 |
| 규칙 위반 | 113(.68) | 27(1.52) | 1.37 |
| 전체 스트레스 | 61(49.51) | 11(38.09) | 1.00 |

〈표 30〉 가족자원의 비교

| 가족자원 | 정상가족 | 상담가족 | F 값 |
|-----------|------------|-----------|----------|
| 가족 자부심 | 218(21.17) | 79(14.56) | 54.86*** |
| 가족의 건강-성취 | 211(41.83) | 77(33.96) | 36.45*** |
| 친척과의 교류 | 228(5.06) | 96(4.40) | 9.25** |
| 경제적 풍요감 | 217(23.60) | 84(19.95) | 19.21*** |
| 전체가족자원 | 196(91.21) | 63(71.97) | 51.76*** |
| 재정 불안정감 | 224(.16) | 82(.18) | .21 |
| 사회적 바람직성 | 227(12.16) | 92(8.73) | 72.11*** |

〈표 31〉 가족의 대응책략 비교

| 가족대응 책략 | 정상가족 | 상담가족 | F 값 |
|------------|------------|-----------|----------|
| 사회적 지원요청 | 226(23.19) | 93(22.86) | .19 |
| 문제에 대해 재해석 | 222(23.90) | 87(22.35) | 5.17* |
| 신앙의 의지 | 228(10.35) | 89(8.70) | 7.25** |
| 전문가의 도움 요청 | 226(8.24) | 92(9.94) | 22.94*** |
| 수동적 대처 | 229(7.10) | 96(7.03) | .09 |
| 전체 대응책략 | 217(77.89) | 79(70.00) | 2.20 |